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사	자
강릉 033. 651. 1385	사천 055. 833. 9981	전주 063. 224. 5501
거제 055. 682. 4950	서귀포 064. 762. 1400	제주 064. 711. 8325
경주 054. 772. 8141	서울 02. 3705. 6000	제천 043. 646. 6009
고양 031. 919. 4040	서천 041. 951. 6400	조치원 041. 865. 2432
광명 02. 895. 1966	성남 031. 701. 2501	증평
광양 061. 762. 0012	속초 033. 635. 8663	진주 055. 753. 6133
광주 062. 524. 3511	수원 031. 252. 5111	진해 055. 542. 0020
군산 063. 462. 4491	순천 061. 744. 7990	
김해 055. 332. 6000		
나	아	차
남양주 031. 577. 7762	안동 054. 854. 5482	창원 055. 283. 9488
남원 063. 632. 7002	안산 031. 483. 6536	천안 041. 575. 0961
논산 041. 736. 7393	안양 031. 455. 2700	청주 043. 265. 3700
	양산 055. 367. 1144	춘천 033. 254. 4878
	여수 061. 654. 2161	충주 043. 848. 3240
	울산 052. 247. 3520	
	원주 033. 742. 6090	
	의정부 031. 853. 6332	
	익산 063. 857. 8910	
	인천 032. 424. 0524	
다	타	파
대구 053. 652. 0070	통영 055. 641. 2537	파주 031. 945. 5998
대전 042. 254. 3035		평택 031. 651. 7701
동해 033. 531. 3007		포항 054. 274. 4444
마	하	
마산 055. 246. 8746	하남 031. 793. 7771	
목포 061. 242. 1611		
바	준비회	
부산 051. 441. 2221	밀양	
부천 032. 668. 9700		

한국YWCA 2011.09



세상살이 힘들어도 하지만 창문 밖 날 다시 찾아주는 이 있어 함박웃음 지어봅니다.

한국YWCA

09

Vol. 484 / 2011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연맹회



01 광주_Y 문화유신팀방 유럽국제캠프



02 통영_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모금



03 서울_Y 탄자니아IT봉사활동



04 포항_Y 환경개선사업지원금전달식



05 마산_Y 환경부와 함께하는 Y장바구니 프로젝트



06 안산_Y 엄마와 함께하는 친환경 요리실습



07 고양_Y 댄스멘토캠프



09 조치원_Y 소록도봉사활동캠프



10 김해_Y 실버인형극단창단



08 남원_Y 농촌봉사활동



11 서귀포_Y 가족캠프



12 수원_Y 민들레푸드 한식뷔페 개소식



청년이상과 직업현실의 균형 찾기

● 글 |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노벨 경제학상과 청년실업이 무슨 관계?

1901년 노벨상이 처음 제정될 당시 경제학 분야의 상은 따로 없었다. 67년의 세월이 지난 뒤, 스웨덴 중앙은행 창설 300주년을 기념해 1968년에 창설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류 자본주의 경제이론의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벨 이름을 붙인 경제학상이 필요했던 측면이 강했다.

그 이후 당연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중 상당수는 신자유주의의 온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시카고학과 출신들이었다. 그런데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노벨경제학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바뀌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폴 크루그먼 교수였

는데, 그의 일관된 이론은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위기를 벗어나는 지름길이 된다. 불경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와 서민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부자 감세보다 훨씬 더 경기 부양에 효과적이다.”는 것이었다.

다음해인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은 더 파격적이었다. 공유재 관리를 위한 행정 기관과 주민 의사 결정 체계인 거버넌스(governance)에 관한 연구의 대가인 엘리너 오스트롬이 받았는데, 그는 이를테면 “어떻게 주민들이 적절하게 참여하면서 생태계 파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등의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학자이다.

4대강과 뉴타운 사업의 토건 국가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노벨 경제학상이 갖는 의미는 도대체 무

엇일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수상 결정이었다.

그러다가 작년 2010 노벨 경제학상에 이르러서는 최초로 노동경제학 분야의 수상자들을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다이아몬드·모텐슨·피사리데스 세 학자가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의 관계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는데, 이들 이론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일자리와 실업자 등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나 시장 기능에 맡겨서 풀 수는 없고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데이터로 입증한 것이다.

한마디로 실업 문제는 취업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어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이 주장을 한국 영화 <내 깡패 같은 애인>에서 깡패 역할을 맡은 배우 박중훈이 취업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여주인공에게 거친 표현으로 매우 쉽게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의 대사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백수 애들은 착해.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프랑스 백수 애들은 일자리 달라고 난리던데, 우리나라 백수 애들은 다 자기탓인 줄 알아요. 자기가 못나서 그런 줄 알고... 착한 건지 미련한 건지, 다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야, 너 화내고 그러지마, 취직 안 된다고... 니 탓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아. 힘 내.”

다소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결국 “일자리와 실업자 등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나 시장 기능에 맡겨서 풀 수는 없고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의 주장과 거의 완벽하게 같은 뜻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청년들의 ‘눈높이’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한다. 청년들이 너무 눈이 높아 수도권 대기업에만 취업하려고 하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눈높이를 낮추어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일자리에도 취업하려고 마음먹으면 청년실업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없다면 청년실업의 해결은 요원한 꿈이 될 수밖에 없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춘 한국 청년들의 실업이 어떻게 그들 탓이겠는가?

그렇다면 청년실업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공공 부문 사회적 일자리 확대, 한국판 평화봉사단 파견, 직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각종 인턴 제도 등이 추진됐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단기 대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어서 단순 아르바이트직만 양산하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청년실업을 고착화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들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정부와 기업의 경제 운용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가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와 기업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필연적 결과다.

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을 이유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빈발해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정부와 기업은 가능한 한 고용을 유지하며 기업 경영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사건에서 보이듯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더 큰 비용을 지불해가며 노동운동 세력과 기싸움을 하듯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구조조정 방식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학계나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돼온 '성장지속형 분배정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나친" 고임금을 문제시하는 시각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만에 하나 그것이 고임금이라 해도, 잔업·철야·휴일특근 등의 초과 노동을 하면서 받는 대기업 노동자의 고임금을 규탄할 것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를 개편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인력 운용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청년들 스스로의 주체적 노력도 중요하다

청년들 또한 청년실업이 사회 의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스스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청년 실업자들뿐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계층 전체와 청년들의 부모인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대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 청년들이 주체로 우뚝 서야 한다.

청년실업과 관련해 엄청나게 많은 독자들이 읽은 책 <88만원 세대>의 저자들이 "20대여, 토폴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고 말하는 주장은 그런 뜻이다. 개인의 초인적 노력으로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가

실업의 장벽을 뚫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여러 청년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에 주목하고 그 문지방을 넘어 직접 참여해보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기하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좌절세대에 고향 :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 글 | 김용출 꿈꾸는 청년가게-스크류엔락 대표

모두들 스펙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

“지저분했던 부엌도 이 제품 하나로 깔끔해졌어요!” “다이얼만 돌리면 원하는 만큼만 잠곡이 딱 나오고, 외관도 예뻐서 좋네요!” 구매한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한 후 인터넷에 사용 후기를 올린 걸 종종 확인한다. 내 머릿속에 있었던 작은 아이디어가 수많은 사람들의 부엌과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온 몸이 미세하게 떨림을 느낀다.

내 나이 서른에 스크류엔락의 대표가 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청년실업이 국가적 문제가 된 것이 이미 오래 전 이야기이고, 막상 취직을 해도 적성에 안맞는 것 같아서 1년 내에 퇴직하는 비율도 높다. 스펙이라는 말도

이제는 고유 명사가 된 듯, 모두들 스펙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나는 취업 전선에서 어려운 위치에 있다. 흔히 말하는 좋은 스펙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전문대 조리학과를 졸업하고, 10년간 조리사로 지냈던 나다. 스크류엔락을 통한 새로운 도전과 그 성과는 내가 일귀 낸 쾌거라 할 수 있다.

단 한번도 변하지 않고 간직한 꿈

전라도에서 9남매 중 7번째 장남으로 태어났다. 넉넉하지 못했던 터라 보리밥을 먹고 자랐다. 1981년도에 태어난 내 주위 친구들에게선 찾기 힘든 스토리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 나는 아버지를 따라 장에 가면서 큰 깨달

음을 얻었다. 가난한 형편이라 아버지는 장에서 나에게 아무것도 사주지 못하셨다. 흔한 우동이나 짜장면 한 그릇도 얻어먹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선 다리가 없이 구걸하시는 아저씨께 쌈지 돈을 꺼내 주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나중에 돈 많이 벌거든 불쌍한 사람들 항상 도우며 살라” 하셨다. 나는 그 순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요리사를 하며 식당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8살 이후로 내 꿈은 요리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간직한 꿈이자 현실이 되었다.

**내 인생의 제2막
'창업 프로젝트'**

스무살이 되어 전문대 조리과를 졸업하고 한식 자격증도 취득해 요리사가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복어 조리사 자격

증도 있는데, 내가 복어요리를 하게 된 이유는 가장 고급요리에 속하는 복어를 세상에 버림을 받아서 상처 받은 아이들, 한부모아이 또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운 아이들에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이 아이들이 이런 따뜻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이 세상이 따뜻한 곳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요리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다. 내가 이 직업을 통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따뜻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되었다. 그렇게 열심히 요리사로 지내다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했더니, 문득 기발한 아이디어가 선물로 다가온 것 같았다.

식당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손님이 몰린다. 그래서 특정시간엔 정신없이 주문이 몰린다. 그런데 바쁜 시간에 양념을 만들기 위해 온갖 양념을 다 꺼내 뚜껑을 열고, 정량을 넣기 위해서는 저울에 계량을 해야 했다. 다 먹은 손님들의 설거지 거리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새로운 주문은 밀려들어오는데, 수많은 양념이 들어가는 한국음식을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 양념과 저 양념이 섞이거나, 손에 묻는 경우가 많아 비위생적이고 양념을 보관하는 데에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뚜껑을 열지 않고, 양념을 일정한 양만 꺼낼 수 있다면 요리사뿐 아니라 주부들도 편하고 위생적으로 요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어릴 적부터 남을 도우라 하셨던 아버님의 영향 때문이었을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를 편리하게 돕고 싶다는 나의 생각은, 결국 다이얼락을 만들고자 하는 큰 힘이 되었다. 그것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정량용기”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청년창업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을 했고, 절실한 때에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제2막 '창업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현실보다 강한
꿈이 있었기에**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 해도 처음에는 거의 '무모한 도전'이 아닌가 싶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아이디어와 약간의 돈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까지 있었다. 현실보다 강한 꿈이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창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병행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운 일들을 해내던 시절이다. 시간이 나는 대로 막노동, 보험영업 등. 이때의 선택기준은 오직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대였다.



그러나 다른 힘든 일을 병행하면서도 나는 늘 마음이 즐거웠다. 내가 개발한 스크류엔락 사업에 대해 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60여년 전에 타파웨어가 천장형 밀폐용기를 만들어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이 되었고, 락엔락이 12년 만에 글로벌 3위 업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밀폐용기를 끝으로 식품용기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소박한 바람과 아이디어로 시작된 다이얼락이 주목받게 되었다. 이것은 2세대에 해당하는 스마트용기가 되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전자기술이 아닌 가장 단순한 스크류 기술로 이러한 스마트 용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분명 이 제품은 주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나의 소박한 바람과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우수 기술로 이어져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모든 직업에는
고유한 가치가 있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한 분야의 전문가를 원한다.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아니면 살아남기도 어

렵고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이런 시대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준비하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시대적인 안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스크류엔락 창업을 준비하며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과, 모든 직업에는 그것만이 갖는 고유한 가치, 그리고 그 일이 주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직업군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 마음가짐의 문제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삶에 대한 의지와 타협하지 않는 꿈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어려운 환경 너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소리를 따라가면**

지금 창업과 직장을 놓고 갈등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도전하라.”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양하다. 그리고 청년의 가능성과 재능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소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는 그렇게 암담하지 않다. 소박한 것 같은 소망과 꿈, 또는 너무나 거대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은 용기와 도전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

Y-틴 동아리로 꿈을 만들어 가다

● 글 | 신진연·이아영·서경덕 YWCA북부지역 Y-틴



요즘 일류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북부지역 Y-틴 회원대회에서는 이런 시대에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그려나가도록 돕기 위해 진로 찾기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다.

7월 23일, 북부지역Y-틴 100여명이 “Y-틴! 날개를 펼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서울Y에 모였다. Y-틴 회원이 자기 이해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자로 성장 가능한 Y-틴 회원, 동아리 회원들의 결속력 강화와 회원들끼리의 교류가 목표였다. 이에 공동체 훈련, 강의, 전문가와의 만남(파일럿, 홍보, 사진작가)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지 탐색해보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5년 후

부터 30년 후까지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보는 ‘비전목표 세우기’를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Y-틴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왜 자신이 비전을 세워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번 회원대회는 Y-틴 회원에게 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인성과 태도를 배우게 하고 자기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며, 비전과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수정해나가는 과정들은 각 지역 Y-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에 Y-틴 동아리 활동은 청소년들의 꿈을 만들어가고 실현해나가는 아름다운 ‘꿈의 공장’이라 부르고 싶다.

내 꿈을 디자인하다 ①

내 꿈을 향해 날아볼까요? 연극배우를 향하여!

신진연 서울YWCA Y-틴 SCENE



나는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비전, 연극인의 꿈을 가지고 서울YWCA에서 키워가고 있다. 14살.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극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함을 느끼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중3 겨울방학, 연극부를 떠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연기는 너한테 뭐야?’ 그때 얻은 대답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용감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모두가 가는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나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키워갈 그 길 말이다.

연극배우의 꿈을 꾸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연극 활동을 하고 싶어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서울YWCA 청소년 연극동아리 SCENE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서울YWCA에서 연기학교를 시작으로 만들어진 SCENE에서는 25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사회나 대학에 있는 선배님들이 꾸준히 연기를 지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나처럼 연기에 꿈을 가진 친구들이 자치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매년 2회 정기공연을 선배님들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때로는 창작극도 올리고 있었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연극이었다. 난 운이 좋게도 활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를 맡게 되었고, 숨 막히게 떨리던 첫 공연을 무사히 마쳤다. 연극을 준비하면서 흘린 땀과 노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순간 기쁨과 꿈으로 다가왔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을 통해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비전을 확실히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지금도 이곳에서 네 번째 공연 <두근두근 다이어리>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비전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평범하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가는 길이 인생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꿈을 가지지 않으면 목표가 없고 목표가 없으면 무의미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내 꿈을 디자인하다 ②

“실과 바늘”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아영 안산YWCA Y-틴 실과비늘



나는 안산Y 동아리 중 내가 활동하고 있는 “실과 바늘”을 통해 갖게 된 비전을 나누고 싶다. “실과 바늘”은 사회기부를 목적으로, 우리들이 가진 재능을 활용해 직접 만든 물건들을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동아리다. 나는 약 3년 동안 “실과 바늘”

을 통해 지역사회에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나는 재능기부를 통해 다른 것으로는 얻지 못하는 소중한 것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내가 재능 기부를 하면 그것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시 따뜻한 사랑을 주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지속적으로 “실과 바늘”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중학생 때부터 Y-틴 활동을 하고 있는 나는 앞으로 내 꿈인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실과 바늘”이 없었다면 나는 꿈을 꾸지도 않고 더 특별해 질수도 없으며 꿈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요즘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학력 청년들의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의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청소년 지도사가 될 것이다.

“실과 바늘”을 통해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되어 후회 없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내 꿈을 이루고 난 후, 이 시기를 겪는 친구들에게도 내 경험을 꼭 들려줄 것이다.

.....

내 꿈을 디자인하다 ③


드러머로 되어가는 성장통이 아프지 않습니다

서경덕 춘천YWCA Y-틴 이터너티



나는 현재 “드러머 서경덕”의 꿈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드럼을 접하게 되었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간 순간 노래에 맞추어 비트를 만들어 내는 드럼소리에 첫눈에 반했다. 이후 춘천YWCA 청소년 문화의 집 드럼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혼자 반주에 맞추어 드럼을 치기엔 부족함을 느낄 무렵, 친구가 밴드를 만든다고 나를 초대했다. 이것을 계기로 2011년 2월 본격적으로 밴드연습을 시작하게 되었다. 밴드동아리의 이름은 “이네 파빌리스”. 춘천YWCA 청소년 문화의 집 소속동아리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밴드의 실력은 제자리를 맴돌았고 불협화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악기로 연주하다 보니 각자 자신의 악기의 소리를 다른 악기보다 크게 조정하였고, 시끄러운 음악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동아리 성장통을 겪은 후 지금은 점차 소리도 맞춰가며 ‘음악’을 하고 있다. 지금은 동아리 투표를 거쳐 동아리 명을 “이터너티”로 변경하고 리더가 되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밴드의 드러머이자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기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느끼게 되었다.

밴드로서 무대에 설 경우 우리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객과 마음이 통하여 즐긴다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각자의 악기로 연주하고 노래할 때, 우리의 진심을 관객이 알고 호응할 때,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은 지금 나에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준다.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나”가 아닌 “우리” 라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것이 최근 동아리 리더로 활동하면서 갖게 된 생각이다. 지금 활동하며 겪는 것들이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양분이 되기에 매 순간이 소중하다.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 8:26)



저는 몇 년 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우선 광야(wilderness)가 어딘지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그곳은 황야라고 해야 옳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으며 온통 돌짜발 투성이인 황무지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성서에서 광야는 매우 친숙하고 가까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성서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며, 거룩한 땅이요, 희망의 문으로 나타나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세계로 전한 사도 바울 역시 광야에서 그의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의 본문처럼 광야의 길은 새로운 것을 여는 길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길이었습니다.

구약성서에 280번, 신약성서에 35번 나오는 광야는 이렇듯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며, 거룩한 땅이요, 희망의 문이며, 새로운 역사의 근원지입니다. 성서에서 광야는 저주 받은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낯설고 먼 존재요 변두리인지 모르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들을 잉태한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성지 순례길에서 풀 한 포기 자라기 어려운 황무지 돌짜발이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강인한 생명이 살고 있는 희망의 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황무지와 같은 시내광야에서 본 이름 모를 작은 풀은 볼품은 없었지만 자기의 키보다 더 큰 튼튼한 중심뿌리로 거친 돌짜발을 뚫고 들어가 역센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극한적인 조건 하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싱그러운 생명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풀을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준비하던 히브리 노예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풀을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야곱과 모세와 호세아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세례요한과 바울과 빌립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그 작고 볼품없는 풀 앞에서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새 삶을 시작하려면, 진정으로 새로운 생명과 평화의 역사를 시작하려면 먼저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대지 위에 자신의 중심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광야는 우리에게 잔뿌리 몇 개로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는 난쟁이나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삶의 중심뿌리를 깊이 내려 푸르른 신앙의 거목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고자 하십니까? 먼저 광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가보십시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앙의 순례길을 떠나고자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천 년 전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9월 YWCA 월례아침기도회, 장윤재 목사 말씀〉

제5차 YWCA 정의포럼-지역정의 YWCA, 왜 지역정의운동을 해야 하는가?




지난 8월 25일 연합회 강당에서 제5차 정의포럼이 열렸다. <YWCA, 왜 지역정의운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지역정의를 실천해나갈 사례를 나누었다. '명동재 개발 사례와 예수 지역정의운동'의 의미'에 대해 한문덕 향린교회 부목사가, 'YWCA생명육아교실-지역주민과 함께 키우는 품앗이 공동육아'라는 주제로 김정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주민참여예산과 YWCA여성운동'에 대해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이, '지역 중심의 북한 여성과 어린이 인권 개선 운동'에 대해 안향선 기아대책 사무총장이 발제를 하였다.

한문덕 향린교회 부목사는 예수님이 하신 운동은 공동체의 자생적 삶의 회복을 위한 운동으로 지역운동이었음을 강조하였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을 없애시는 것과 치유, 사회적 연대감 확보,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위로와 희망을 주심으로 공동체 다시 세우기 운동을 하셨다. 또한 현재 도시환경 개발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명동재개발 상황 속에서 지역운동 주체가 될 수 있는 교회와 YWCA가 해야 할 일은 말로만 그치는 성명발표를 자제하고, 지역생태지도를 그려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등, 지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품앗이 공동육아' 사례발제에서는 광명Y와 서울Y가

락종합사회복지관의 품앗이 공동육아 연구결과를 발표해서 품앗이 공동육아가 핵가족 육아의 소외를 벗어나 즐겁고 건강한 육아경험을 갖게 하며, 육아와 교육을 지역과 사회 차원에서 넓게 볼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YWCA가 지역 속에서 품앗이 공동육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였다. 박동순 안양Y사무총장은 주민의 의견이 참여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참여예산제도, 성인지예산제도의 참여 사례를 발표하였다. YWCA가 지역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YWCA가 정책이 실제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안향선 기아대책 사무총장은 북한 실상을 보여주는 사진을 통해 북한 현실에 대해 말했다. 북한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YWCA가 도움이 절실한 지역에 집중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지역정의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회원YWCA대표단은 YWCA의 정의정신, 자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각 지역 속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과 함께 일할 것을 다짐하였다. '지역정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오늘도 YWCA는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한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다. 

평화세상을 위한 한·일YWCA 청년들의 행진을 시작하며

● 글 | 김은지 연합회 청년운동팀 간사

제13차 한·일YWCA 청소년 협의회가 지난 8월29일에서 9월2일까지 4박5일 동안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진행되었다. 1993년에 처음 시작된 한·일YWCA청소년 협의회는 우정 어린 관계를 지속해온 한국YWCA와 일본YWCA가 양국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YWCA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양국의 공동 관심사 연구에서부터 시작해 문화 교류, YWCA의 청년 활동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협의회 이후에는 양국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번 제13차 한·일YWCA청소년 협의회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난 7월 YWCA세계대회에서 채택된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한·일 공동결의문을 이행하는 첫 걸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제는 '평화세상을 위한 한·일YWCA 청년들의 행진: 탈북, 재일 청년들과 더불어 살기'이다.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나 차별받고 있는 탈북, 재일 청년들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들과 더불어 살기 위한 평화활동가로서의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참가자와 특별히 탈북청년 15명, 총 78명이 참여하여 역대 한·일YWCA청소년 협의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협의회 첫 날은 통일을 위해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북한 선교를 하시는 예수원 벤토레이 신부님이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의 역할'에 대해 기초강연을 해주셨다. 탈북청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셋넷학교의 교장 박상영 선생님과 함께한 '몸으로 만나는 평화'는 한국과 일본, 탈북 청년들이 손을 잡고 몸으로 부대끼며 즐겁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평화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느낌을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는 것, 배려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다음날 'National Report'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리 준비해온 것을 발표하였는데 재일청년들과 탈북청년들의 현황과 이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이들을 위한 국가의 지원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이기호 교수님의 '청년 평화운동가의 역할 찾기'라는 주제로 평화비전워크숍이 열렸다. 과거 국가가 주도하는 평화는 군사력에 의존하여 냉전체제를 유지하려했다면 지금 아시아에서 평화라는 것은 냉전체제와 함께 국가 간에 서로 관계도 맺으려고 하는 냉전체제라는 것이다. 또한 '2050년 한반도 평화를 통한 동아시아 협력체제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조별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다. 2050년의 국가의 모습을 청년들의 시각으로 상상해 보았는데 2050년에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되



▶ DMZ 평화의 종 앞에서



▶ 일본 참가자와 함께




▶ 함께 모여 토론하다

어 평양에서 올림픽 개최, 영토 분쟁, 아시아 전쟁, 동북아의 협력 강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러한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그 중에서도 전쟁, 한반도 통일 문제, 생명공학의 발전, 기후 변화, 지도자 등이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이 활동을 하면서 미래 사회의 막연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사건들과의 관계성, 새로운 시공간에 대해 브레인 스트레칭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주의를 넘어 지구시민으로서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다. 문화로 만나는 평화시간에는 셋넷학교의 탈북청년들의 공연과 한국, 일본 참가자의 공연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이었다. 특히 탈북청년들의 아픔과 극복을 보여주는 마임과 구슬픈 '소쩍새' 노래는 진한 감동을 주었다.

9월 1일 목요일에는 현장에서 만나는 평화로 파주 DMZ와 셋넷학교를 방문했다. 도라산 전망대를 통해 바라본 북한의 모습은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졌고 비무장 지대를 통과해 제3땅굴에 직접 들어갔을 때는 아직 우리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평화의 다리에서 철조망에 쓰여 있던 많은 글을 보면서 통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저녁에는 협의회 이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젊은 평화운동가로서 탈북, 재일청년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 실천 할 수 있는 'Action plan'을 짜보

았다.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 세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개인의 인식 변화에서부터 시작해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것, 평화교육, 교류 프로그램, 취업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National Peace Development(NPD) 즉, 국가평화지수를 개발해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재미있는 의견이 나왔다.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깊이 있는 의견이 많이 나와 이들이 미래세대의 주인공으로 평화를 위한 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날에는 전날 있었던 Action plan을 수정, 발표하였고 2012년 일본에서 열릴 제14차 한·일YWCA청소년 협의회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본의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이 핵발전 문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폐회에배를 드림으로 짧고도 긴 여정이 마무리 되었다.

젊은 평화 활동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각자의 삶에서 평화를 위해 하루 1분씩 짧게 기도하는 것도 작은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그 작은 발걸음을 내딛으려고 한다. 2011년 여름, 평화세상을 위한 한·일YWCA 청년들의 행진이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에서 크게 번져 나가길 기대하며 우리 모두 파이팅!

한·일YWCA 청소년 협의회 실천 결의문

- 하나. 우리는 다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의사소통하고자, 다른 사람의 언어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배운다.
- 하나. 우리는 SNS,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알린다.
- 하나. 우리는 북한이탈청소년, 재일청년들과 적극적,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탈북청소년 및 재일동포 관련 기관에 정기적으로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매일 평화의 기도를 1분 이상 드리며 일상생활에서 평화를 실천한다.
- 하나. 우리는 평화교육과 각종 평화관련 청소년 개발활동, 지역평화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소감문

제13차 한·일 YWCA 청소년 협의회를 마치며

● 글 | 이재영 관동대 국어교육학과 4학년

나는 이번 13차 한·일 YWCA 청소년 협의회 한국 참가자로 참여하였다. '평화'라는 단어만큼 듣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말이 또 있을까?

한·일 협의회 참가자들은 Peace - Maker 구성원으로써 탈북, 재일동포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몸으로 만나는 평화'에서는 함께 공동체 놀이를 하였다. 손과 손으로 만나 한 점으로 연결된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근원적인 대답이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로 다가왔다. 손과 손을 맞잡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여러 선생님들의 강연을 들으며 한국 사회, 일본 사회 속에서 탈북 청소년과 자이네티 재일동포들이 받는 설움과 힘겨운 현실 상황에 마음이 아팠다.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그 거리감을 좁히며 삶 속에서 그들의 일상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

어야 한다."는 박상영 셋넷학교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실천은 '액션 플랜'을 통해서 잘 나타낼 수 있었는데, 각자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 같은 인격체로서의 존중 받을 권리인식, 인권존중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다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 함을 배웠다.

후끈 달아오르는 열기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의 아물지 않는 상처를 함께 보듬고, 우리의 주체처럼 함께 행복을 실천하며 생명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청년 평화운동가로서 살아가는 것일 것이다. 나는 매일 '1분 묵상 기도'를 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피스 메이커가 되어 평화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씩을 맞춰 나가며 성숙한 평화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협의회에 참여한 모두의 내면에 평화의 아름다운 색이 튀어질 것 소망하며, 4박 5일간의 행복하고 아늑한 추억 잊지 못할 것이다.

한국 여성 지도력 발굴의 산실

제9회 YWCA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한국여성지도자상은 한국의 여성 지도력 발전을 위해 지난 89년 동안 노력해온 YWCA가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과 능력을 지지해 온 한국 시민은행의 후원을 받아 제정한 상이다. 이 상은 다양한 영역의 여성 지도자를 사회에 알림으로써 한국 여성 지도력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되었다.



대상 주선애 명예교수



2011 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교육학 교수이면서 탈북민의 남한 정착과 인권향상에 기여하여 탈북민의 대모로 불리는 주선애 장로교신학대학 명예교수이다. 주선애 명예교수는 송실대 기독교교육과 조교수, 장로회신학대학 교수와 대학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은퇴 후 2006년 탈북자종합회관을 개관하여 탈북민들의 인권보호와 남한 정착을 위해 헌신한 기독교 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이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탈북자들과 같은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하며 지원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검소한 삶과 겸손한 자세로 소외된 이웃을 향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사랑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여성 지도자이다.

INTERVIEW

Q 탈북자종합회관의 원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탈북민들에게 마음을 쏟으시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신지요? 통일을 위한국사회와 YWCA가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는지 제안해주십시오.

A 나는 공산당의 기독교 탄압을 피해 고향인 평양에서 남한으로 탈출한 탈북자이기에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2년 같은 고향 사람인 황장엽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상담이 필요한 그들과 상담을 하며 적극적으로 탈북자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정착을 돕는 것이 사명임을 깨달았다. 우리집에서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그 자체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 북한에서는 좀처럼 알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억압된 존재로 지내왔기에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

Q 한국YWCA와 인연을 어떻게 맺게 되셨습니까? YWCA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A 60년대 초 미국 유학시절에 김현자 선생님을 만나면서YWCA에 대해 알게 되었다. 교회 여전도회 활동을 열심히 해왔는데, 사회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조금 약하다고 느낀 터에 Y활동을 보니 새로운 세계를 만난 느낌이었다. YWCA는 사회를 배우는 동시에 사회에 봉사하는 곳이었다. 90년대에 '바른 삶 실천대회'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우리사회의 사치스럽고 허영된 모습에서 Y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새바람을 일으킨 것이다. 그때 나온 아나바

다 운동은 지금까지 지속되는데 자랑스럽다. '바른 삶'이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 좋겠다.

Q 여성지도자 수상소감과 한국기독교여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A 한국사회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일해오신 여성선각자들이 많이 있었기에 내가 이 상을 받는 것 자체가 황송하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도덕적 수준, 공동체의식, 나라사랑의 마음이 현저히 낮다. 한국기독교여성들이 남을 돕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기를 바란다. 나는 한국여성의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믿는다.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착한 마음을 사회 속에 확대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풍성케 하러 오심'(요10:10)과 같이 한국기독교여성도 우리 사회에서 생명을 풍성케 하는 역할을 통해 사회건설의 기쁨을 맛보기를 바란다.

젊은 지도자상 김문정 음악감독

젊은 지도자상을 수상한 김문정 음악감독은 맘마미아, 미스사이공 등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부터 서편제, 명성왕후, 내 마음의 풍금, 광화문 연가 등 창작뮤지컬에 이르는 다양한 뮤지컬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젊은 뮤지컬 음악감독이다.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쌓은 진정한 실력으로 배우와 객석의 소통을 훌륭하게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분야에서 꿈을 향해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롤 모델로 기대된다.



특별상 이영아 원장



특별상은 다시서기 의원 최영아 원장이 수상하였다. 최영아 원장은 대학교 때 접한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다일천사병원, 영등포 요셉의원 등을 거치며 10여년 간 노숙인을 비롯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을 계속해 온 내과의이다. 지금은 노숙인을 위한 진료센터인 다시서기 의원의 원장으로 일하며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에 헌신함으로써 함께 하는 행복과 진정한 의술의 의미를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고 있다.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웃에 대한 섬김과 존중을 몸소 실천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국 여성들은 교육과 사회 참여 기회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전문분야와 정부나 기업의 주요한 의사 결정 지위에 진출하여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남성 지도자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위해 더 많은 여성 지도자의 발굴이 요청된다.

이에 YWCA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력의 이상형을 정립하고,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여성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지도력과 업적을 인정하고 알림으로써, 사회 인식을 증진시키며, 차세대 여성 지도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이 시대와 여성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YWCA

YWCA와 함께 되살이를 이루는 농사꾼 이야기

● 글 | 고만술 되살이 영농회 대표



나는 배운 것이 농사다. 농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농사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 참으로 무식한 놈이요 융통성이 조금도 없는 것 같다. 옛 어른들이 공부안하면 '너는 농사나 지어라'고 하셨다. 내가 바로 그런 지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농사꾼이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다 보니 목숨을 걸고 농사일에만 전념하고 의지할 수밖에 또 있겠는가? 그러므로 농사는 나의 생명이며 생의 전부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풀과의 전쟁이요 벌레하고의 싸움인 것을... 별을 보고 나가면 별을 보고 들어와서 저녁밥이라고 먹고 나면 땀에 젖은 옷도 벗지 않고 그 자리에서 코를 골기일수였다. 이렇게 살다보니 좋은 시절도 있었다. "잘살아보세 잘살아 보세" 노래가 아침에 마을 스피커에서 소리를 치면서부터 제초제라는 것이 나왔었고, 풀을 안 메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남들도 하기 전에 마을에서 제일 먼저 구하여 사용하여 보았더니 이놈 또한 효자였다. 땀벌에서 하루 종일 받고 랑을 해매고 다녀도 다 못할 것을 아침 일찍 한 시간만 일

하면 농토 모두를 두 달은 놀고먹을 수 있으니 효자가 아닌가? 마을 사람들이 다음해부터는 제초제를 어떻게 하면 풀이 잘 죽느냐고 나에게 물으러 다녔다. 나는 우쭐하여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 효자가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변하고 말았다. 제초제와 농약에 노출되면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 이름 하여 "환경호르몬"이라고 하면서 계속 먹게 되면 암 걸리고 손발이 떨리고 신경이 마비되고 결국 신체의 장애 아니면 죽는다고 한다. 이 환경호르몬으로 하루에 일만 중 이상의 생물이 죽어가고 또한 괴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봄은 오지만 새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침묵의 봄이 올 것이다'란 글을 읽을 때는 등골이 오싹하였다.

나는 1988년 유기농업을 시작했다. 다시 풀과 벌레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4년간 돈이라고는 손에 잡아보지 못하였지만 먹고는 살만치 하느님은 나에게 먹을 것은 꼭 주었다. 유기농사는 밭농사로부터 시작하였는데 농토의 일부만 하면 농약을 치고 싶은 유혹이 생겨서 안 되었다. 자꾸 농약쳐서 편하게 농사짓던 생각이 나서 하루에도 몇

번을 농약병을 들었다 놓았다를 하면서 또 다른 나와외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유기농은 양심의 농사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 면적을 무농약으로 늘렸다. 무농약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추억에 남는 것은 판매 과정이다. 그 당시 무농이란 표시가 없었다. '농약을 안치고 농사지은 것입니다' 하면 '누가 봤나요?' 이 말을 보증할 증거가 없는 것이다. 하여 면장님을 찾아가서 증거를 하여달라고 하니 면장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알아봐서 알려 주신다고 하더니, 며칠 있다가 농산물검사소를 찾아가보라는 것이다.

1995년 검정콩 인증을 받았다. 농검 직원이 인증서를 사진틀에다 넣어서 가져다주면서 전국에서 1호로 받았다고 하면서 몹시 기뻐하셨다. <당시는 품(品)자 인증이었다.>

이렇게 하여 다음해에 논 3천 평에 처음으로 오리 4백마리를 넣었는데, 처음 해보는 것이라 실패하였다. 다음해는 우렁이를 수소문하여 넣었다. 이것도 처음이라 조금은 실패하였지만 80%는 성공이었다. 논농사는 우렁이 농사가 제격이었다. 다음해부터는 잘되었다. 이렇게 성공하자 우리 '되살이' 회원들에게도 확산이 되고 마을도 함께하기 시작하였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알아주고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친환경 농업단체는 '되살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한살림과 함께 우리 농을 탄생케 하였다. 20여년 농사가 잘 되어 잘 팔려나가면 좋았고, 농사를 잘 하여농고도 팔리지 않아 갈아엎을 때는 자식을 잃은 것 같은 마음이었다.

따지고 보면 어려운 일이 더 많았지만 유기로 인증을 받자 목포YWCA에서 찾아 오셔서 먹을거리 구입을 협상하였다. 어린이집 먹을거리를 구입해 가면서 우리가 우렁이 넣기 행사를 하는 것을 보시더니 어린이 교육에 좋겠다면서 같이 동참 하잔다. 그로부터 우리 '되살이'와 목포YWCA와는 인연이 시작되었고 해가 갈수록 더 신임이 굳어지게 되었다. 여름에 함께 고구마를 심고, 가을에는 체험

학습으로 고구마캐기를 시도하여 봤는데, 그것 또한 해볼만한 것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린이집 원아들이 아니라 초등학생 정도면 직접 모심기라도 하여 보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다.

여기서 빼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면 '요리대회'다. 작년 까지 2회 개최했는데, 우리 영농회에서 재배한 농산물로 요리를 한다는 것과 유기농산물이 인간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될 때 영농회 대표로서 정말 뿌듯한 일이었다. 사정이 허락 한다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아쉬운 것은 우리 회원 중에 축산을 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 아쉽다. YWCA에서 좀 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지금은 너도나도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여 먼저 하던 사람들은 소비가 잘 되지 않아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내 가족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여 온 국민이 유기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와서 국민은 건강하고 유기 농사를 짓는 농사꾼은 농사일에만 전념하며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문제는 판매가 잘되어 경제적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바라는 만치 이루어지지 않아 힘에 겹다.

YWCA와 인연은 참 좋은 인연이었으며 우리 '되살이' 영농회가 YWCA와 유대를 존속함으로 잘 살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몇 년 전에 목포YWCA의 무슨 기념일인가 된다고 하여 일하다가 씻지도 못하고 일하던 복장으로 고무신 신고 갔더니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큰 홀에 가득 찬 여성들의 빛나고 밝은 눈동자를 보면서 앞으로 이 여성들이 목포뿐 아니라 이 나라의 희망이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목포YWCA 사무총장의 소개로 전국에서 오신 회원들을 보았다. 정말 잘 뭉쳐있었다.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흔들리다가도 바로 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건전한 모임, 건전한 생각 YWCA의 무궁한 발전을 빈다. 

'100년의 비전'을 품고

● 글 | 최양님 광주YWCA 부회장




“초대받은 순례자”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렌다. 이번 제38회 전국대회를 준비하면서 진정한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된다. 그동안 전국대회를 여러 차례 참여해오면서 느꼈던 감동과 도전은 늘 나를 기대감에 부풀게 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자양분을 얻어 지금까지 Y의 자원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

전국대회 준비모임을 통해 순례노트를 받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비장한 각오와 다짐으로 전국대회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이번 대회의 달라진 모습이다. 나는 과연 순례자의 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있는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며 순례자의 삶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며, 그 시대마다 해야 할 일들을 찾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오셨던 선배님들을 떠올려 보게 된다. 민족이 암울했던 1922년 여성 선각자 세 분, 김필례, 유각경, 김활란으로 시작된 순례의 길에서 한국 YWCA는 선배들의 정신을 본받아 결연한 마음으로 100년의 비전을 품고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광야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지 못하고 인간들의 욕심대로 많은 자연 자원을 훼손하며 편안한 삶만을 추구해 온 지난 날들을 반성해본다.

100년을 향해 나아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배들의 결실 위에,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제38회 전국대회에서 우리에게 던져질 새로운 비전들이 YWCA 공동체와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본다. 하늘나라 일꾼인 9만여 순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을 믿으며 참으로 인간적이고 소박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순례자로서의 길을 떠나야 할 것 같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내려놓기를 반복하면서... 

순례자의 길, 세상을 살리는 길

● 글 | 홍진영 조치원YWCA 간사




2년 전, 가슴 설레이며 1년도 채 되지 않은 설익은 실무자로서 전국대회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다. 2009년 6월, 경주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이 YWCA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들의 물결로 가득 채워졌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속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악수하며 끌어 안던 사랑 넘치는 광경들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환경을 생각하여 에코 천에 물 들인 각 지역 Y의 배너를 들고, 빛나는 촛불을 밝히며 오를 때마다 힘찬 박수로 격려하는 등, 전율이 가실 줄 몰랐던 그 날이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왔던 Y안에서 이제 다시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제38회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다. 37회 전국대회를 통해 나는 3층 이하의 계단은 튼튼한 다리로 걸어 다니게 되었고, 1회용 종이컵 사용을 현저히 줄이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지만 너무 기뻐다.

Y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곳이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미친다. 지역에, 나라에, 세계에 조금씩, 많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다. 우리의 바른 생각, 바른 소리, 바른 행동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열납되기를 바란다.

며칠 전, 대학선배이자 지금은 어느 교회의 전도사님인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진영아! 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 기도해줄래?” 정말 뜻밖이었다. 언니는 나를 위해 늘 기도했지만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언니가 ‘얼마나 힘들면’ 하는 생각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하루가 지나서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진영아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주셨어 나는 노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나는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벅찼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를 중시하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의 비웃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순례자의 길을 마친 후 하나님 앞에 서야한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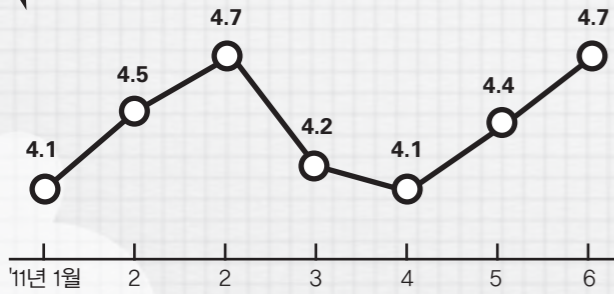
우리는 전국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정의를 찾으며 순례자의 길을 다짐했으면 좋겠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예수님 제자들의 행진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YWCA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국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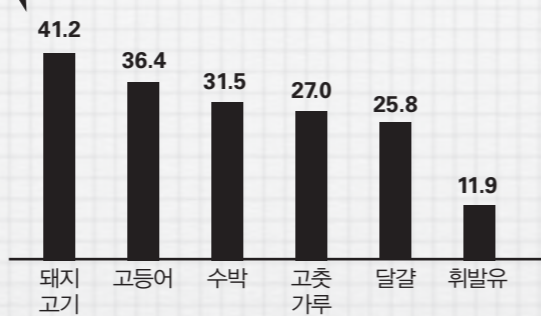
우리들의 환경홀대 자연재해, 치솟는 물가로 다가오다

글 | 이은영 연합회 실행위원 /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소비자 물가지수 증감률



7월에 많이 오른 주요 품목



※ 전년 동월 대비 (단위:%)

※ 출처: 통계청

요즘 우리 사회나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는 환경문제다. 많은 시민들이 환경관련 이슈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행사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의식있는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최근 휘발유, 식료품비 등이 급등하면서 물가 또한 큰 경제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상반기 4.3%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은 특히 전지구적 자연재난이 많았던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먹을거리와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국제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인해 곡물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상 한파로 인한 채소가격 폭등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는 더욱 더 큰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이상기온으로 고등어 어획량이 2010년 절반으로 줄어

드는 등 어획 부진에 따른 생선가격 상승 역시 장보기 물가를 더욱 높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을 규범적이고 당위론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면, 인간 욕심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자연재해로 인해 우리의 현실 생활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어떤 비용이 드는지를 살펴보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실 때 1개, 자판기 커피를 마실 때 1개 등 매일 우리는 하루에 한

개에서 수개의 일회용 종이컵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일회용 종이컵을 만들고 소비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비되는 일회용 종이컵은 약 120억 개, 돈으로 환산하면 1,440억에 달한다. 사용된 종이컵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20억, 일회용 종이컵을 생산하기 위한 펄프를 수입하는 데만 연간 358억 정도가 든다고 한다. 또 일회용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하지만 머그컵을 사용하게 되면 쓰레기 양은 300배, 대기오염은 60배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며 1사람이 1년에 15년생 소나무 한그루를 살릴 수 있다. 작은 실천인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적, 지구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제가 마땅하지 않은 농산물과 수산물 같은 경우는 어떨까?

매년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만약 지구온난화로 인해 연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면 1ha당 쌀 생산량은 4.5%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농작물의 시장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가계에도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40년 동안 제주의 해수면은 22cm가 상승하였다. 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해수면의 상승은 경작 가능한 농지의 절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농지면적의 감소는 농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농산물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해수온도 상승으로 수산물 생산도 급감하고 있다. 매년 1도 정도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에서 명태, 오징어 생산량이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수산물의 시장가격도 매우 빠르게 상승하였다. 예전에 흔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즐겨먹던 수산물이 불과 수년 사이 비싸서 쉽게 구입하기 힘들어진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온난화와 해수온도 상승의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이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생활용품이나 공산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전기나 소재의 생산, 그리고 상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상품을 많이 소비하면 할수록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증가하게 되고 환경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재활용이나 리사이클링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탄소세 징수 법안이 집행되고 있는 추세여서 세금부과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으로도 연결된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첨예화된 소비지상주의, 신상품 선호경향 등이 점차 더 이산화탄소를 많이 소비하는 사회구조, 산업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일반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물가부담도 점차 늘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규범적 차원에서의 환경보호와 자연보호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경제를 위해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적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간 YWCA는 환경보전을 위한 생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3층 이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나가기, 일회용 종이컵 사용하지 않기, 설거지 할 때 주방세제 대신 쌀뜨물이나 EM 사용하기 등등. 환경을 위하는 생활습관들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생활 실천 운동의 확산이 우리 회원들의 가계 살림이나 국가살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이 실천이 우리가 숨을 쉬고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땅을 살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실천과 확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바이벌 TV 프로그램

서바이벌 세상에서 살아남기

● 글 | 김지숙 전 연합회 간사/ 소설가

SURVIVAL



TV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열풍은 Mnet에서 만든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가 의외의 큰 성공을 거두면서 시작한다. MBC가 <위대한 탄생>이라는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만들며 뒤따랐고 분야를 달리한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처음에는 가요 부문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종류도 늘어, 연기(SBS <기적의 오디션>), 오페라(tvN <오페라스타>), 댄스(MBC <댄싱 위드 더 스타>), 피겨 스케이팅(SBS <키스 앤 크라이>) 등으로 다양해진다. 이제는 얼마나 자신이 가난한지 서바이벌로 경쟁해 이긴 사람에게 집을 주고(MBC <집드림>), 가요계의 원로들도 살아남기 경쟁에 뛰어들었다(MBC <나는 가수다>). 그야말로 어디를 가나 경쟁, 또 경쟁하는 서바이벌 세상이다.

상품은 점점 화려해지고, 참가자 수와 방송사 측의 광고 수입은 늘고 있다. 이제 댄스학원에 '서바이벌 프로그램 오디션 준비반'이 생길 정도다. 단기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TV편성표를 잠식해버린 까닭에, 이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식상하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각 방송사에는 새로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방기에도 기획하고 있으니, 당분간 열풍은 지속할 전망이다.

흥미진진하다 VS 불편하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중 하나는 '흥미진진하다'는 것이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두 번의 기회는 없다. 단 한 번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한다. 누군가는 경쟁에서 이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누군가는 떨어져서 참가자격을 박탈당하는 구도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생긴다. 게다가 프로그램별로 설정된 게임의 룰은 참가자들이 감정을 감출 수 없도록 만들어진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탈락자가 바로 방을 빼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여준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진 팀 참가자들이 스스로 퇴출자를 정한다. 그 안에서 생겨나는 견제와 신경전 또한 서바이벌의 핵심구성요소다. 만들어진 드라마가 지루한 사람들은 예측불가능한, 살아있는 드라마에 열광한다.

그런데 TV 앞에 앉아 프로그램을 편안히 즐기기에겐 어떤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다. 승자는 단 한 명뿐이며 매회 패자의 모습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 때로는 경쟁이 과열되어 생기는 반목을 목격하기가 괴롭다는 점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TV 속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유행어 중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야말로 1등만 의미 있는 것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TV 속 서바이벌 전

쟁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무한경쟁사회의 축소판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TV 앞에 편안히 앉아, 경마장의 말을 응원하듯 나 대신 달려줄 누군가를 응원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청자는 참가자에게 자신을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아름다운 외모나 유학파의 참가자보다 무의식 중에 자신과 닮은, 소시민적인 모습의 실력파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슈퍼스타K 2>에서 환풍기 수리사였던 허각이 1등을 차지한 점, <위대한 탄생>에서 가족과 뿔뿔히 흩어져 라면을 주식삼아 살아가던 연변 출신의 백청강이 우승한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경쟁의 장에서 반걸음씩 밖으로

물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역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가요제> 역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원래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장점은 외모나 학력 등 기타 조건에 관계 없이 실력 있는 사람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허각이나 백청강 역시 스펙보다는 실력으로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다.

시청자들은 우승자의 성공신화에 가슴 찡해 한다. 그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고, 대리만족을 느낀다. 심지어 떨어진 참가자들은 실력에서 밀린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맞아,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는거야!'라는 생각에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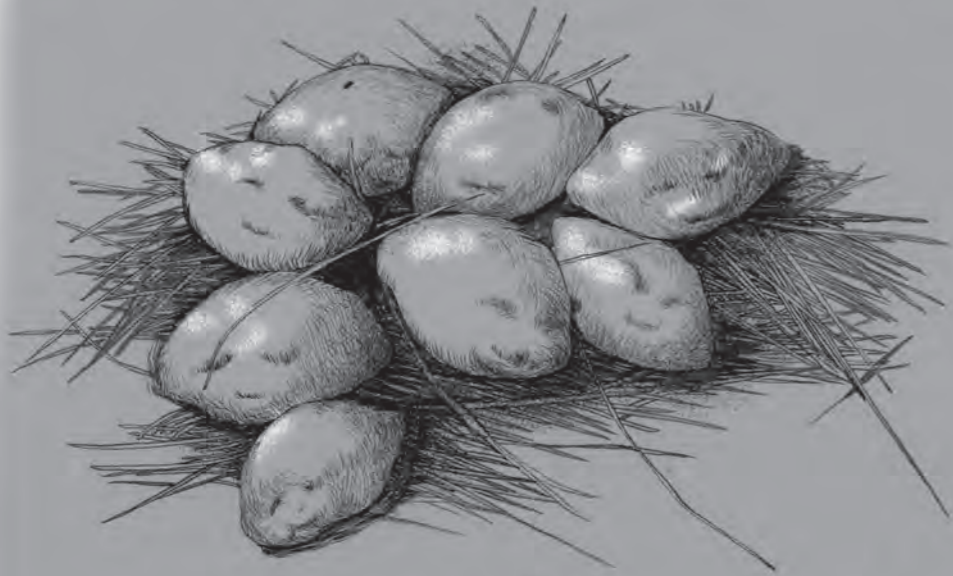
차기도 한다. 은연 중에 서바이벌 게임의 룰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경쟁의 장인 인생 속으로 돌아가면 그 생각이 함정이었음을 깨닫는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다. 하지만, 그 승자는 소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내가 지원한 회사의 엄청난 경쟁률을 확인할 때, 나보다 '스펙'이 좋은 지원자를 볼 때, 회사에서 진급하기 위해 상사의 눈치를 봐야할 때, 명예퇴직자 명단에 오를까봐 노심초사할 때, 사람들은 '진짜'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되어 우승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일까. 그렇지 않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일부 참가자가 보여준, 순위에 구애받지 않는 도전과 노력, 그리고 타인을 향한 격려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악마리 근성을 발휘하는 사람보다는, 여유를 갖고 참가한 순간을 즐기는 사람을 응원한다. 우리 안에서는 경쟁 속에서도 행복하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경쟁 시스템 밖으로 박차고 나갈 수 없다면, 경쟁 시스템의 색깔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승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현재를 즐기으로써 경쟁 시스템 밖으로 반 보 씩만이라도 비껴 걸으려는 노력, 서바이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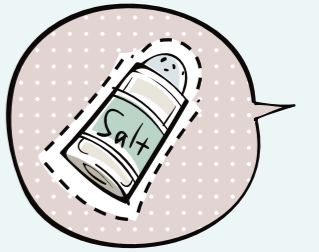
마고 할머니~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날 어머니가 빗어놓은 송편이
 힘든 세상살이 허느라 이그러진 자식들의 얼굴을 닮았다.
 늙은 어미를 찾아온 잘된 자식 못난 자식들은
 마고할미는 넓은 치마에 그저 품는다.



2011. 9. 박정화씨

소금! 그것이 알면 쉽다



● 글 | 이종임 연합회 실행위원 / (사)대한식문화연구원 원장

소금의 주된 성분은 나트륨(Na)과 염소(Cl)로 염화나트륨(NaCl)이라 불리는 짠맛을 내는 조미료입니다. 나트륨은 몸속의 수분량을 유지하여 신체평형을 유지하고 신경의 신호전달을 도와 신경자극으로 근육이 잘 움직이도록 하고 소화된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우리몸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지만 매우 적은 양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결국 Na섭취가 많아져 고혈압을 비롯한 심장병, 위암, 신장질환, 뇌졸중, 골다공증 같은 합병증을 일으켜 우리 몸을 나쁘게 합니다. WHO에서는 1일 소금 섭취량을 5g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1일 소금 섭취량은 약 12g으로 2.5배나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나트륨의 1일 목표섭취량은 2000ml(소금으로는 5g)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1작은술의 양)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양으로는 2000ml(2g)으로 저나트륨식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소금을 적게 넣고 급식에서는 짠음식을 적게 담고 외식에서는 되도록 소금양을 줄이고 식사시 국물을 적게 먹는 실천전략이 필요합니다.

처음 저나트륨식을 하면 너무 싱거운것 같아도 입맛은 길들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저나트륨식에 익숙해지면 식품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해질 수 있으니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소비자가 되어 노력하고 꼭 실천하는 일만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나트륨을 적게 먹는 방법으로는

- 1 식품포장에 표시되어 있는 영양표시중 Na량을 꼭 확인할 것.
- 2 라면, 햄, 소시지, 스낵, 과자류등 가공식품, 통조림, 반조리식품, 인스턴트를 적게 먹을것.
- 3 국, 탕, 찌개, 국수류의 국물을 적게 먹고 스프, 소스류의 양을 적게 먹을것.
- 4 채소, 과일, 우유속에는 좋은 영양소와 더불어 칼륨(K)이 많이 들어 있어서 Na를 몸밖으로 배출해주므로 많이 섭취할 것.

저나트륨식 조리를 위한 요령으로는

- 1 짠맛을 줄여 식품자체의 신선한 맛을 살리자.
- 2 천연조미료와 향신료를 사용하여 음식의 맛을 살리자.
- 3 간은 가능한 싱겁게 맞추고 너무 뜨거울때 간을 하면 짜질 수 있으므로 식힌 다음 간을 하자.
- 4 저나트륨 조리 방법에 관심을 가져보자.



hi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생활습관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암검진

국내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 치료할 수 있는 5대 암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생애전환기인 만 40세, 만 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 및 건강위험 평가(뇌졸중, 심근경색, 혈관성치매, 암 등)와 생활습관 평가, 의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우리나라의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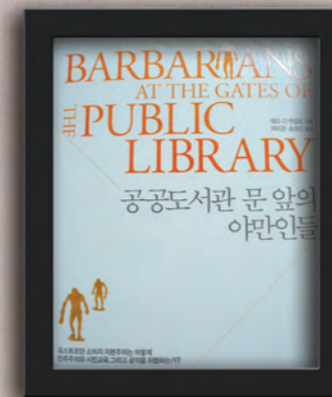


영유아건강검진
제함수기



암검진
제함수기

*QR 코드를 이용해 건강검진
제함수기 동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문 앞의 야만인들

●글 | 에드 디 앤절로 ●옮김 | 차미경·송경진 ●일월서각

이 책은 문헌정보학을 비롯하여 공학, 철학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에드 디 앤절로가 쓴 책으로 공공도서관이 맞닥뜨린 현대사회의 위기를 냉철하게 분석한 책이다.

저자의 다양한 학문배경에 걸맞게 철학적, 사회인식적, 역사적 통찰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부추겨진 소비문화로 상징되는 포스트모던 소비자 자본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시민사회를 붕괴했으며, 그러한 가운데 공공도서관이 예전의 가치와 지위를 상실하고 대규모 자본에 의한 체인형 서점처럼 효율성과 능률의 잣대에 따라 기계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단순 조직으로 전락하도록 강요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 독자들에게 문화적 세계가 자본과 기업에 의해 붕괴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사례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몰락이 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위협이 되는가를, 그리고 이러한 야만의 습격이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준다. 가을로 접어드는 이 길목에서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이 책을 읽어본은 어떨런지!



강남좌파

●글 |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강남 좌파」에서는 노무현 정권 시절 강남 좌파 논의를 최초로 제기한 강준만 교수가, 조국, 손학규, 유시민, 문재인, 오세훈, 박근혜 등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인물들 심도 있게 연구하여 '강남 좌파'에 대해 명확하게 재정립한다. 그는 계급적으로 상류층에 속하고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이 진보적 가치를 역설하는 게 위선이나 아니냐는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지적하며 강남 좌파의 일장일단을 정리한다. 그리고 강남 좌파의 긍정론과 부정론을 제시하며 강남 좌파의 속성을 살펴본 뒤, 강남 좌파의 유형을 강남의 성격, 주체의 위상, 좌파의 실천 등 3가지 관점에서 각 3가지 유형, 9가지로 분류한다. 강남좌파 논의의 '이념'보다는 '엘리트'문제는 걸 재차 확인시켜준다.

한 길 가는 순례자

●글 | 유진 피터슨 ●옮김 | 김유리 ●MP

탁월한 영성 신학자 유진 피터슨은 마치 관광객처럼 자신의 필요와 기호에 맞는 영성을 찾아다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순례자의 영성을 갖추라고 말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리는 시편 120-134편의 열다섯 편의 노래는 히브리 순례자들이 성대한 예배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순서대로 불렀던 노래로 보인다. 이 노래는 순례자로 살기로 한 이들을 위해 안내서와 지도로서의 실용성뿐 아니라, 흥겨움까지 겸비하고 있다. 저자는 이 노래를 통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들려준다.





세계YWCA본부 훈련을 마치고 세계Y의 운동을 배우고, 한국Y를 알리다

글 | 최윤영 한국YWCA연합회 평화운동팀 간사



세계YWCA 사무총장, 직원들과 함께



세계YWCA 본부, 제네바

지난 7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YWCA세계대회가 열렸다. 세계 108개국에 널리 퍼져 활동하던 Y 자매들 약 500여명이 만나 함께 서로의 Y운동을 나누고 배우며, 어려움과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었다. 취리히에서의 세계대회 이후 약 2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YWCA본부에서 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Y본부는 무척이나 아늑한 곳이었

다. 바로 옆에 있는 수풀에서 여우 가족이 살고 있는 자연과 가까운 곳이었고, 또한 WCC 등의 관련한 국제기구들의 본부가 함께 모여 있는 행정적 편의가 있는 위치이기도 했다. 세계대회를 마치고 바로 제네바의 본부, World Office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생각하며, 세계Y의 운동과 그 속의 한국Y의 운동에 대하여 고민하고 세계Y의 실무자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2주간, 자원봉사자로서 일하며, 우선은 2011 취리히 세계대회의 평가작업을 담당하였다. 참가자로서 참가하였던 세계대회를 평가자의 눈으로 뛰어난 점과 아쉬웠던 점 등을 파악하는 것은 무척이나 새로운 경험이었다. 세계대회의 참가자로서 세계의 많은 YWCA들 속에서 직접 체험한 한국YWCA의 위상은 막연히 한국Y연합회에서 들어온 것과는 조금 달랐다.


2011 세계대회 회계보고에 따르면, 한국YWCA는 108개의 Y회원국 중 3번째로 많은 회비분담금을 내는 조직이다. 세계Y 본부에서는 회원수와 운동수, 예산 등을 기준으로 회비분담금을 할당하는데, 이를 통해 한국Y의 규모가 다른 Y들에 비하여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세계대회에 참가한 대표단의 규모도 가장 큰 Y 중 하나였다. 6명의 정식대표와 12명의 방청대표라는 정원을 꽉 채워 온 Y는 한국Y, 일본Y, 미국Y, 캐나다 Y 그리고 주최국인 스위스Y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세계의 회원국 중에서도 큰 규모와 활동력을 보유한 한국Y였지만, 운동에 관하여는 조금 달랐다. 우선 한국Y는 운동을 알리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다소 소극적이었다. 한 예를 들어 한국Y가 해온 다문화여성 지원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Y들이 깜짝 놀라곤 한다. 한국Y처럼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국적 규모로 운동을 하는 곳은 많이 없다고 한다. 한국Y의 54개 회원YWCA에서 하는 다양한 운동을 모두 세계Y의 친구들에게 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세계Y 자매들의 반응은 놀랍다. 대단하다 일색이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Y는 큰언니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규모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여성지원에 관하여 말레이시아Y, 홍콩Y, 싱가포르Y 그리고 일본Y 등 우리의 주변국가의 자매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고 함께 협력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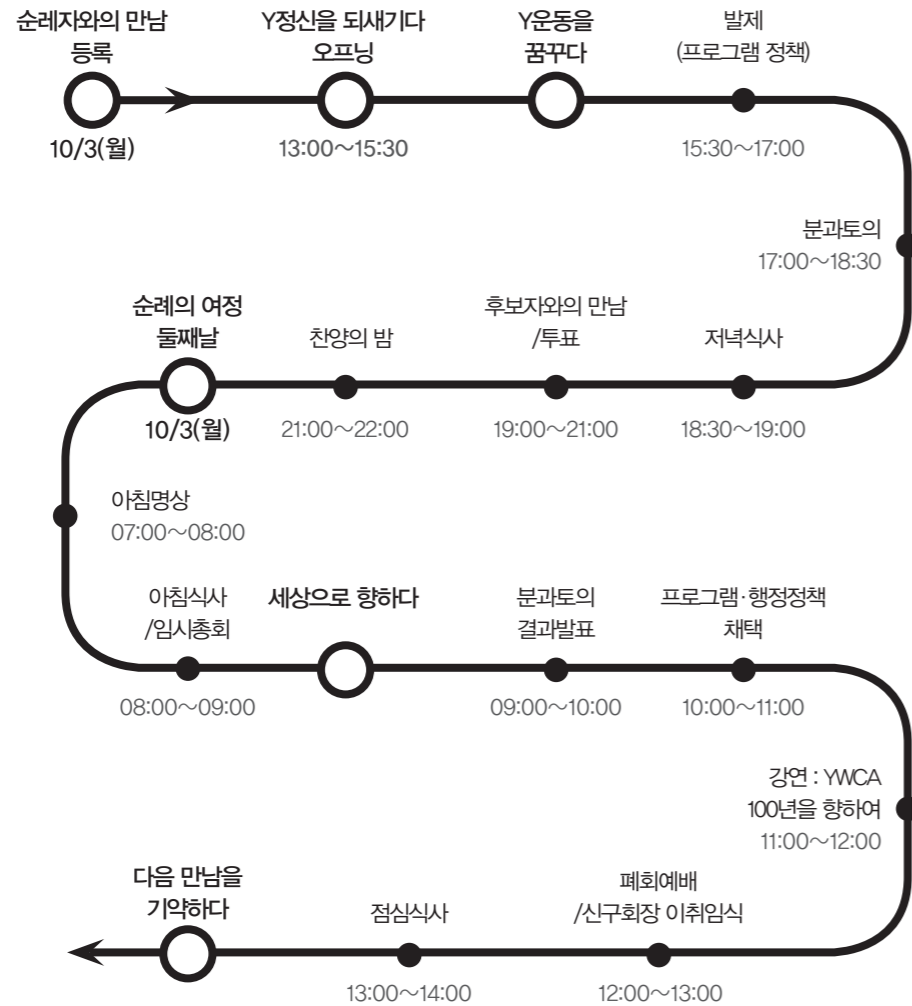
고 또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였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세계YWCA의 운동과 우리 운동의 접점이 조금 약하다는 것이다.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지난 8년간 세계YWCA는 AIDS와 HIV바이러스에 관한 운동을 핵심운동으로서 전개하여왔다. 한국YWCA에서는 지금껏, 에이즈에 관한 이슈의 접근성이 어렵고 또한 국내 에이즈 환자의 수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멀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아메리카 지역 담당자인 카트리나 램프(Catrina Lamp)의 말을 들어보면 세계Y의 주력 운동인 에이즈 운동을 한국Y에 좀 더 부드럽게 융화하는 해결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남미의 칠레Y는 무척 높은 기독교와 이에 걸맞은 보수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었다. 처음 칠레Y에서 에이즈 운동은 펼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칠레Y는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에 맞추어 운동을 전개하였다. 에이즈라는 병명을 직접 들이대기보다는 우선 여성의 성적 건강, 유방암과 자궁암 등 여성질환에 대한 경각심으로 접근하였다. 이후 젊은 여성들의 성(性)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현재는 매우 성공적으로 여성의 성적관리에 대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러한 점을 한국Y가 받아들여 좀 더 세계Y의 주력운동에 함께 한다면 세계Y 속에서 한국Y의 인지도와 위상이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세계Y 속 한국Y는 우리가 국내에서 느끼는 바 이상으로 높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욱 큰언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 좀 더 우리의 운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하는 운동을 세계에 체계적으로 알리고 때로는 세계의 자매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주고, 때로는 그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배우는 모습을 꿈꾸며 그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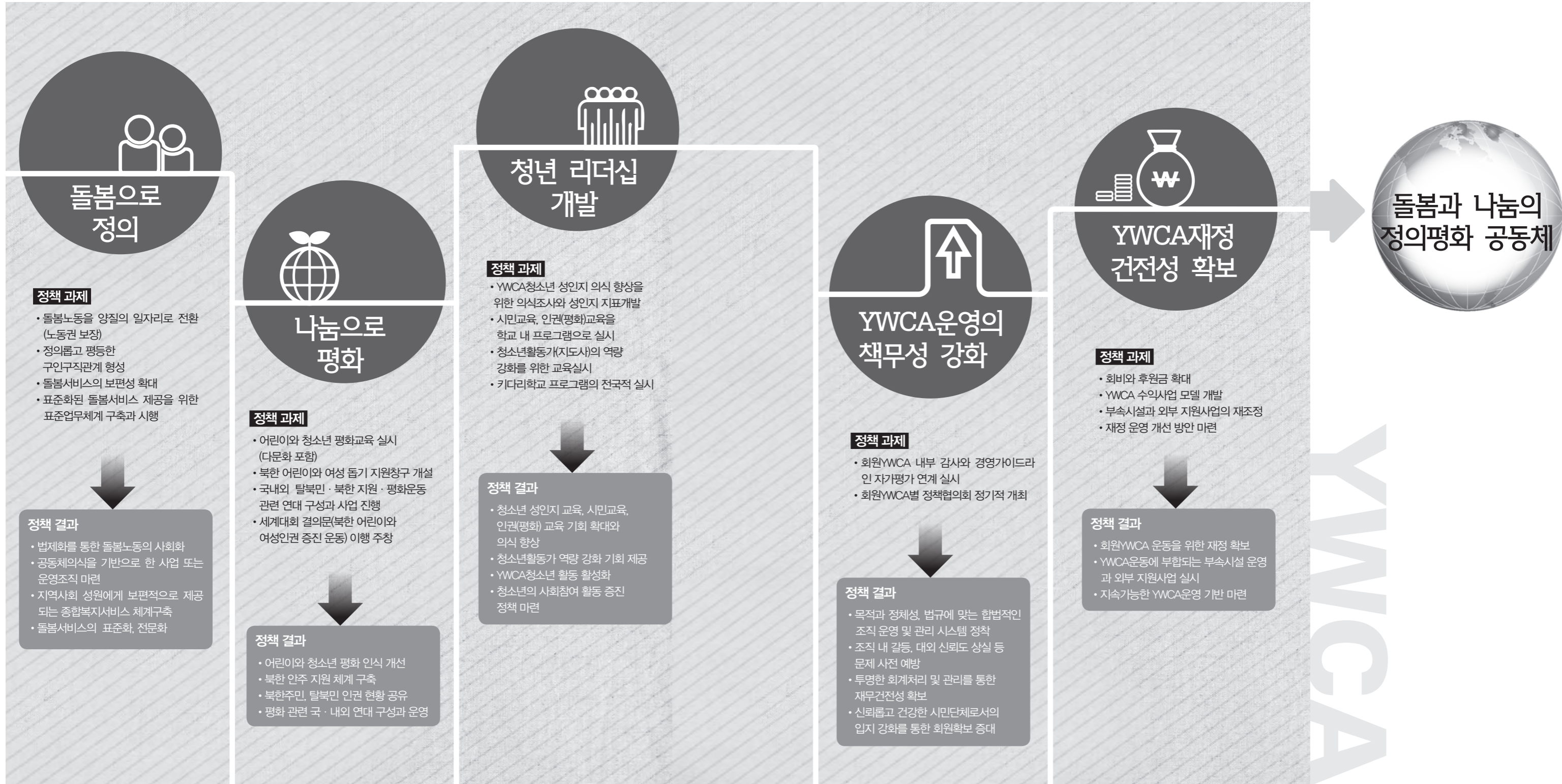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순례의 여정



제38회 YWCA 전국대회 알아보기

YWCA 전국대회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53개의 회원YWCA의 대표들이 프로그램 및 운동방향결정 ■ 실행위원과 공천위원 선출 ■ 한국YWCA 정책 결정 ■ 총회와 회원YWCA의 제시 안건 토의 및 처리
제38회 전국대회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WCA 90주년을 향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 ■ Y운동가로서의 다짐과 선언의 장 ■ 전국대회 대표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협의
제38회 전국대회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마지막 80주년 대 전국대회이자 첫 90주년 대 전국대회 ■ 공간- YWCA운동이 시작되고, 종합되는(연합회 소재지) 서울 ■ 내용- 회원대회와 분리, 대표들의 정책 협의 강화 결의 이후 첫 대회 ■ 규모- 2박 3일에서 1박 2일, 대표 수 기존의 1/2로 축소 ■ 경제적 효율성과 내용적 밀도를 극대화하는 대회 ■ 대표- 청년대표들의 참석을 독려, 세대 간 조화·협력을 이루는 대회
제38회 전국대회 대표단 순례자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을 살리는 9만 회원의 대표 ■ 회원·한국·세계YWCA와 세대를 대표하는 YWCA 운동 동역자 ■ 순례 여정에서 돌봄과 나눔, 생명살림을 실천하는 동역자
순례에서의 생활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례자의 삶으로서의 소박함 ■ 소박한 식사 ■ 식사 전 함께 나누는 공동기도, 선현식 실천 ■ 소박한 생활- 적게 쓰기, 일회용품 쓰지 않기, 쓰레기 만들지 않기, 에너지 절약하기 ■ 개인 컵,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9월의 YWCA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p>광주Y 추석맞이 도농직거래장터(~9일)</p> <p>대구Y 새터민 평화지기 모임</p> <p>YWCA복지관 직원 연수(~2일)</p> <p>대전Y 심터 공예품 개강</p> <p>목포Y 추석맞이 Y-바자회(~3일)</p> <p>부산Y 좋은 화장실 문화만들기 교육</p> <p>부천Y 아기학교 개강</p> <p>안동Y 추석떡살 나누기</p> <p>여수Y 추석바자회(~2일),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을학기 유망직종 설명회</p> <p>포항Y 물가조사 실시</p>			
					<p>강릉Y 여성희망찾기 프로그램</p> <p>대구Y 다문화 관련 기관 간담회</p> <p>동해Y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p> <p>사천Y 아동·여성 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시작</p> <p>양산Y EM 텃밭가꾸기</p> <p>의정부Y 씽크머니강사모임</p> <p>제주Y 성폭력·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p> <p>충주Y EM홍공 던지기</p>		<p>강릉Y Y-틴과 함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캠페인</p> <p>대구Y Y-틴 클럽활동</p> <p>대전Y 중학교 CA활동지도</p> <p>목포Y 추석맞이 독거노인 송편나누기 (Y-틴)</p> <p>부산Y 부산YWCA와 만물어기는 출산장려프로젝트</p> <p>부천Y 청소년자원봉사단 - 함박웃음 자원봉사데이</p> <p>서울Y 결혼이주자녀 멘토링 서약식</p> <p>여수Y Y틴 봉사활동</p> <p>의정부Y Y-틴 녹색성장교육</p>
<p>고양Y 실무자 성사천 EM홍공 던지기 행사</p> <p>김해Y 씽크머니 학교특강(5, 6, 9일)</p> <p>남원Y 산모돌보미 "아기사랑" 민들레모임</p> <p>대전Y 회원참여의 날</p> <p>의정부Y '아토피와 안전한 먹거리' 사별가정을 위한 회복프로그램</p> <p>서귀포Y 다문화양성교육</p> <p>수원Y 간병인 교육(~9일)</p> <p>안산Y 기후에너지 활동가 보수교육(~16일)</p> <p>양산Y 집단상담 프로그램 11기</p> <p>제주Y 민들레학교 평화도서전(~10일)</p> <p>충주Y 새일센터집단상담개강</p> <p>평택Y 산모돌보미 교육</p>	<p>마산Y EM 홍공 던지기</p> <p>서울Y 가락 어르신 경로잔치</p> <p>의정부Y 환경체험 교사 세미나</p> <p>춘천Y 즐거운 노래교실</p>	<p>거제Y 사랑의 노인복지대학</p> <p>대전Y YWCA 큰잔말</p> <p>사천Y 제23주년 창립 기념 예배</p> <p>서귀포Y 여성진화기업 협약식</p> <p>수원Y 알음알음 나눔장터, 결혼이주여성 'Good Mom Diary' 리본공예</p> <p>양산Y 천연화장품 만들기 동아리 '자연미인'</p> <p>조치원Y 조치원YWCA 여성노인대학 개강</p> <p>진주Y 진주YWCA 노인대학 개강식</p> <p>포항Y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p>	<p>대구Y 결혼이민여성 피부미용마사지 서비스 활동</p> <p>부천Y 경기도여성환경학교 - 현장견학</p> <p>사천Y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p> <p>안동Y 다문화 자조모임</p> <p>양산Y '찾아가는 환경운동' 양산관내 축산농가 방문 EM발효액 지급</p> <p>의정부Y 학교급식 농산물 지키미활동</p> <p>전주Y 여성리더십 교육 개강식</p> <p>천안Y 회원환영대회</p>	<p>고양Y 어린이철학교실</p> <p>대구Y 대구사랑나눔장터 개장</p> <p>서귀포Y ITQ사무자동화양성과정 취업지원협의회</p>	<p>고양Y 녹색패밀리 '지구를 지켜라'교육</p> <p>광주Y 그린탐험대 어린이체험활동</p> <p>김해Y 토요일더심학교 개강</p> <p>남원Y Y-틴동아리 및 청소년동아리</p> <p>대구Y 청소년 민들레 "초아2기"</p> <p>서귀포Y 문화자원봉사활동(정혜재활동)</p> <p>수원Y 초등놀이프로그램(미술관), EM 홍공만들기</p> <p>제주Y 어린이민주시민교육 '관용정신체험활동'</p> <p>진주Y 청소년 해피스쿨 '알듯말듯 나를 찾아가는 심리검사'</p>		
← 추석 →			<p>사천Y 지역아동센터 예절교육</p>	<p>수원Y 분부·지부 실무자 포럼</p> <p>양산Y 다문화 한국문화기행 (거제도)</p> <p>진주Y 환경지킴이'가족봉사단' 소하천 홍공 던지기</p> <p>통영Y EM과 함께하는 친환경운동</p>	<p>의정부Y 7차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수료식</p> <p>광주Y 시설장 코칭리더교육</p>	<p>고양Y 대학생자원봉사 OT</p> <p>대전Y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 참가</p> <p>부천Y 국내인양활성화를 위한 부천시 인양부모 간담회</p> <p>서울Y 성동 청소년 팀방단 런닝맨</p> <p>여수Y 아나바다장터</p> <p>진주Y Y-틴 청소년문화존 체험부스 운영</p> <p>천안Y 씽크머니데이</p>	
			<p>김해Y 창업멘토링 - 제과점 창업의 모든 것</p> <p>남원Y 신나는공부방 원예체험학습</p> <p>서귀포Y 문화관광코디네이터 취업지원협의회</p> <p>익산Y EM활용 생명세상 캠페인</p>	<p>대전Y 2011 대전여성 취업·창업박람회</p>	<p>사천Y 소비자의 알 권리 교육</p> <p>의정부Y 유해환경감시활동 / 캠페인</p>	<p>고양Y 녹색패밀리 '지구를 지켜라'실천활동</p> <p>광주Y 그린탐험대 어린이 아·바·다 장터</p> <p>대전Y 어린이Y 역사체험단</p> <p>목포Y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특강</p> <p>서귀포Y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벼룩시장</p> <p>서울Y 성동 우리처럼늘어나보자 난장판</p> <p>수원Y 다문화가정 자녀 내모습알기 캠프(승마체험)</p> <p>안산Y 시민참여 재활용 나눔장터, 신나는 교과서 밖 과학여행 - 에너지파크 견학</p>	
<p>충주Y 유소년문화 체험</p>	<p>광주Y 돌봄과 살림 전담 2차교육(~30일)</p> <p>김해Y 살림돌보미 교육</p> <p>서울Y 강남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 (~29일)</p> <p>안산Y 결혼이민여성 법률교육</p> <p>여수Y 산모돌보미 교육</p> <p>의정부Y 구직회원 재교육 및 월례회의</p> <p>전주Y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건물정화원 교육</p>	<p>대구Y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22일)</p> <p>서울Y 중국알기연구모임</p> <p>조치원Y 성모유치원 씽크머니</p> <p>천안Y 나도야 출장요리 전문가 (평생학습프로그램) 개강</p>	<p>남원Y 편편(FUN-FUN)한 등하교도우미 민들레모임</p> <p>대구Y 교도소 선교</p> <p>다문화 기초 소비자 교육</p> <p>대전Y 애들아, 아침밥 먹자</p>	<p>김해Y 김해YWCA 일일찾집, 창업특강 -개그맨 권영찬</p> <p>남원Y 행복한 가정만들기 부부캠프(~30일)</p> <p>마산Y 씽크머니 교사연수</p> <p>제주Y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청년잡페어"</p> <p>포항Y 가족상담센터-가정폭력예방캠페인</p>	<p>대구Y 새터민과 함께하는 어깨동무</p> <p>동해Y 일일찾집</p> <p>목포Y 폭력없는 목포시 만들기 주민 설명회</p> <p>사천Y 다문화가정 경주 엑스포 나들이</p> <p>안산Y 다문화가정 시부모 교육</p> <p>양산Y 심량문화축전 참가</p>		
			<p>광주Y 찾아가는 회원Y교육-익산Y</p> <p>고양Y 3040신입회원을 위한 특강</p> <p>서울Y 평생회원 체험행사</p> <p>수원Y 수원YWCA 42주년 기념 및 일일찾집</p> <p>진주Y 회원 어울림 한마당</p> <p>포항Y 가족상담센터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특강</p>				

전국 YWCA 회장·사무총장·실행위원 연석회의



8월 30일~31일 버들캠프장에서 회원YWCA 회장·사무총장·실행위원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연석회의가 진행되었다. 한국Y 정체성, 부속시설 운영 관련 문제, 투명한 재정 운영 관련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건강한 Y운영원칙을 수립하였다. 또한 Y영성훈련교재인 <새벽종소리> 연구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현안협의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전국대회 실행위원 선출을 앞두고 공천위원회가 연합회 실행위원회의 역할에 맞는 후보를 엄선하여 인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어 임시총

회를 소집하여 결의된 내용은 대표들이 연합회 선거제도 연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다음 전국대회까지 안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제38회 전국대회에서는 정관 개정 없이 공천위원은 선출, 실행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후보들을 그대로 받아 인준하기로 하였다.

9월 YWCA월례아침기도회



9월 1일 월례아침기도회가 오전7시 반부터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장윤재 목사가 '그 길은 광야라'는 제목으로, 전국대회를 앞두고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YWCA 회원들에게 먼저 '광야'로 나갈 것을 권고하였다. 영상을 통해 전국 52개 회원 YWCA가 함께 기도회에 참여함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성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 p. 15 참조)

YWCA 제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 선정

YWCA는 제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한국여성지도자상'은 2003년부터 한국씨티은행과 협력하여 진행해 온 권위 있는 상으로서 한국의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헌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온 여성 지도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 p. 20 참조)

제5차 YWCA 정의포럼 : 지역정의운동



지난 8월 25일 연합회 강당에서 회원 YWCA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제5차 정의포럼이 열렸다. '지역정의 YWCA, 왜 지

역정의운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안에서 정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참가자들은 지역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역현안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자세한 내용 p. 16 참조)

제13차 한·일YWCA청소년 협의회 개최

8월 29일~9월 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3차 한·일YWCA청소년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평화세상을 위한 한·일YWCA 청년들의 행진 -탈북, 재일청년들과 더불어 살기'란 주제를 가지고 한국YWCA 청소년 42명, 일본YWCA 청소년 22명 총 64명이 참가하여 평화세상을 만들기 위해 양국의 청소년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협의하였다.

YWCA 실행위원 연수

8월 31일 버들캠프장에서 실행위원 연수가 진행되었다. 연합회 실행위원 19명이 참석하여 전국대회 대표준비모임과 YWCA 90주년 Visioning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꿈꾸었던 소망과 기대를 나누고 또한 지난 2년간 실행위원 활동을 되짚어보며 감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대회 대표준비모임 시간에는 전국대회를 앞두고 Y 생명살림의 순례자로서 정체성과 YWCA 운동에 대해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YWCA어린이집 교사 연수



7월 27일~29일 도봉숲속마을에서 YWCA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6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교사 연수를 진행하였다. 박은주 경민대학유아교육과 교수가 '생활환경에서 찾은 생태환경교육의 실제', 임희옥 실행위원이 '기독교사의 역량강화', 박은실 연합회 국장이 'YWCA정체성과 YWCA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자긍심'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또한 생태유아교육 숭반 운영사례 보고와 공동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YWCA 씽크머니 금융강사 기초·심화과정 교육

지난 8월 3일~5일, 8월 9일~11일 버들캠프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YWCA 씽크머

니 금융강사 교육이 있었다. 기초과정 금융강사 24명, 심화과정 금융강사 1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기초과정에는 금융교육이해 및 Y가치관 교육이 포함되었으며 심화과정에는 청소년운동이해와 강사의 역할과 자세 교육이 포함되었다.

YWCA 복지관 직원 연수



9월 1일~2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10개 YWCA 복지관 직원 연수가 있었다. 복지관과 3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등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대 최중혁 교수가 "지역복지운동과 사회복지관의 향후 방향"을 주제로 강의하였고 복지관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발표가 있었다. 복지관 직원들이 YWCA정체성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다.

YWCA 지역아동센터 교사 연수



9월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2차 국내연수 "희망을 찾아 한걸음 여행"이 진행되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의 후원을 받아 개최하는 본 연수에는 참가자와 실

무자, 강사 등 총 38명이 참석하였다. 책을 매개로 아동을 만나고 지역사회에서 감성교류를 하고 있는 달리도서관의 사례를 공유하고, 프로포절 기획 워크숍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교사로서 전문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올레길 탐방을 통해 쉽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조별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센터의 정보를 교류와 지역 네트워킹 비전을 세웠다.

저소득 다문화가정 출산 지원 사업

YWCA는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출산예정 다문화가정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출산예정 다문화가정의 산모 140여명을 대상으로 출산비 지원은 최대 150만원, 산모-신생아돌보미서비스는 2주간 지원한다. 돌봄 서비스에 체계적인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춘 YWCA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산후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1차 공모와 지원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1, 2차 총85명 선정 및 지원이 있었고, 3차지원을 통해 53명 지원예정이다. 3차 공모기간은 8월 19일~9월 16일까지이다.

동정

- 파주Y 이광실 사무총장이 9월 1일자로 취임하였다.
- 연합회 정서연 운동국 간사가 커뮤니케이션팀에 9월 1일자로 신규채용되었다.

경기 지역

고양 YWCA ●이혜경 간사

문화봉사활동-댄스멘토캠프

고양Y는 청소년Y-Teen을 대상으로 8월 5일~6일 서울대 댄스동아리 H.I.S가 멘토로 참여하는 문화봉사활동-댄스멘토캠프를 진행하였다. 중고등학생 90명과 대학생 10여명이 함께 댄스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청소년들의 진로와 비전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댄스멘토링을 통해 팀별로 각기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여 둘째 날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펼쳤다.

- 7월 8일 고양여성영화제 '하夏 하夏 하夏'
- 7월 9일 양성평등교육

광명 YWCA ●백혜숙 간사

건강한 성의식에 대한 교육과 성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

광명Y는 8월4일, 12일 광명YWCA성폭력상담소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의식에 대한 교육과 성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광명경찰서여성청소년계 경사님의 학교폭력예방교육과 광명YWCA성폭력상담소 소장의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과 건강한성 올바른 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하였으며, 교육 후 광명상업 지역에서 불법유해업소 계도 및 성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7월 9일 양성평등교육

부천 YWCA ●김해경 간사

부천YWCA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캠프

부천Y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들이 8월 8-9일 경기도 여주에서 '청소년이 살기 좋은 학교, 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참신한 토론이 이어진 자리였다. 캠프에서 논의된 내용이 부천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추후 모임이 이어질 것이다.

민들레썬씨 작은도서관 세계동화기행

8월 10-12일 3일 동안 부천YWCA가 위탁 운영하는 민들레썬씨작은도서관에서 세계동화기행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참여한 국가는 일본과 몽골이고, 앞으로 다양한 나라의 동화를 어린이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 8월 16일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수원 YWCA ●이민정 간사

다문화가정 자녀 내모습알기 캠프

수원Y는 8월 18일 '다문화 가정 자녀 내 모습 알기 캠프'를 진행했다. 다문화가정 자녀자아정체성 확립과 부모나라 문화 이해를 통한 가족 간 화합에 도움을 주기 위함 캠프이다. 용인청계목장에서 송아지우유주기, 젓소 젓짜기, 건조주기, 트랙터 타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의 평소에는 해보지 못했던 체험활동을 했다. 참가가 즉 모두 새롭고 신나는 체험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뽀뽀뽀 주말버스

수원Y는 8월 11일에 수원시내 4개 초등학교의 3, 4학년 학생들과 인솔교사 총 120여명이 주말버스를 타고 잠실 키자니아를 다녀왔다. 수원Y는 수원시교육청과 함께 맞벌이 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양극화 해소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말버스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경제 뮤지컬 관람

수원Y는 8월 16일 어린이들의 올바른 경제관과 소비습관을 심어주기 위해 40여명의 초등학생들과 함께 "재크와 요술지갑"이라는 경제뮤지컬을 관람했다.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통해 함께 보고 즐기며 자연스럽게 경제교육이 이루어졌다.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경제가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친근다가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시간이었다.

- 7월 1일 본지부실무자연수(강화도)
- 7월 14일 아주대학교 간병인 간담회
- 7월 20일 알음알음 나눔장터, 생활텃밭보급운동
- 7월 30일 수원하천탐방
- 8월 17일 생활텃밭보급운동
- 8월 18일 다문화가정 자녀 내모습알기 캠프(청계목장)
- 8월 23일 교토YWCA 관계자 방문

안산 YWCA ●문성은 간사

엄마와 함께 하는 친환경 요리실습

안산Y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구를 살리는 생명밥상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엄마와 함께 하는 친환경 요리실습'을 진행하였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친환경 영양간식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7월 8일 장애청소년 한마음 가요제
- 7월 9일 성폭력피해자 심신회복캠프(~10일)
- 7월 13일 어린이 에코리더 환경교실 - 태양광자동차 만들기
- 7월 14일 안산교육지원청과 급식조리종사원 업무협약체결
- 7월 25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꿈의 날개' 캠프(~31일)
- 7월 29일 다문화가정 그린에너지 캠프(~31일)
- 8월 4일 나무리 어울림 캠프(~6일)
- 8월 19일 어린이 별자리 캠프(~20일)
- 8월 27일 엄마와 함께 떠나는 친환경 농촌체험

안양 YWCA ●이한나 간사

EM자원봉사학교

안양Y는 7월 21일~22일이틀에 걸쳐 안양인근지역 중·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땅과 생명을 살리는 EM자원봉사학교를 진행하였다. 자원봉사와 생명살림 EM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직접 호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EM발효액을 전달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학의천을 찾아 발효액을 뿌리고 직접 만든 흙공을 던지며 EM을 통한 생명살림 운동을 실천하였다.

'왕따가 된 성매매군(♂)과 낙태양(♀)' 체험식 교육

안양Y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7월 25일~29일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왕따가 된 성매매군(♂)과 낙태양(♀)'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이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며, 성매매와 낙태 행위가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폭력행위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성매매와 낙태 근절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 7월 9일 저출산캠페인 '여럿이 함께라서 행복해요'
- 7월 20일 안양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 발족식
- 7월 21일 2011 청소년 자원봉사자학교
- 7월 26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진로캠프

의정부 YWCA ●윤소영 간사

어린이 지구시민교실

의정부Y는 8월 9일~12일까지 총 4일간 경기지역 거주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 지구시민교실을 운영하였다. 다문화체험교육(인권감수성 훈련, 베트남 선생님의 고향이야기, 나는 베트남요리사, 베트남 종이공예, 나만의 캐릭터 손수건)와 환경교육(생태체험, 사이렌 먹거리, 정크아트)을 하였다. 어린이지구시민교실을 통해 새로운 이웃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지구를 지키는 환경실천의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어린이

이 지구시민교실'은 '나는 곧 당신'이라는 공존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차세대 리더학교의 역할을 하였다.

청소년하계자원봉사학교

의정부Y는 7월 25일~7월 29일까지 여름 방학을 맞이한 의정부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였다. 자원봉사학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전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평택 YWCA ●남예슬 간사

민들레옥토(한식당) 오픈

평택Y는 행안부와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평택YWCA 사업단 민들레 옥토 한식당을 오픈하였다. 민들레옥토는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로컬푸드 식당으로,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유휴 잠재인력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민들레옥토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통한 로컬푸드 도농 복합도시의 모델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앞장 설 것이다.

또래 친구 만들기 여름캠프

평택Y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또래 친구 만들기 여름캠프를 진행하였다. 또래친구 만들기는 관내 중,고등 장애·비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께 자연 속에서 조별활동과 게임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장애청소년 16명, 비장애청소년 30명, 자원지도자 20명 등 70여명이 참여해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물놀이, 카니발, 댄스파티, 캠프파이어 등 신나는 활동을 했다.



거제 YWCA ●옥정미 간사

청소년금융교실 씽크머니

거제Y는 8월 13일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경제금융교육 씽크머니 금융교실 방과 후 학교-체험캠프'를 다녀왔다. 이번 씽크머니 체험캠프는 현장체험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전한 직업관과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전한 금융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청소년오케스트라 클래식 문화 캠프

거제YWCA청소년오케스트라는 7월 28일 단원 20여명과 함께 2011년 여름방학 클래식 문화연수를 거제시의 후원으로 부산문화회관에서 뮤지컬 투란도트를 관람했다. 이번연수는 거제YWCA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간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풍요롭고 조화된 연주활동을 돕는 계기가 되었다.

- 7월 14일 거제YWCA 청소년오케스트라 가조도 창호초등학교연주
- 7월 4일~12일 청소년금융교육씽크머니 방과후 학교(6회)
- 8월 12일 소비자상담센터 어린이금융교육 체험(서울)

김해 YWCA ●배정숙 간사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실버인형극단 靑春 창단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8월 11일 실버동화인형극 지도사 과정의 수료생으로 구성된 실버인형극단 『靑春』의 발대식을 갖고 그동안 배

운 기량을 뽐내는 인형극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으로 실시된 실버동화인형극지도사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동화구연, 인형극 조작, 인형 및 교구 제작, 공연 탐방 등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앞으로 실버인형극단 『靑春』은 인형극을 통해 세대소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등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배움의 사회 환원의 활동들을 펼칠 계획이다.

- 8월 19일~20일 동부지역Y-틴 회원대회
- 8월 8일 결혼이주여성 베이커리교육 개강
- 8월 26일 창업 트렌드 창업교육
- 8월 29일 "다문화과정과의 행복한 동행" 수료식

대구 YWCA ●김세형 간사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17주년 기념예배

7월 20일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17주년 기념예배가 있었다. 17년간 센터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와 말씀, 실무자와 위원들의 특송으로 꾸며진 예배를 드리고, 함께 다과를 나누었다. 대구YWCA 이사 외 많은 분들이 참석해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누면서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을 나누었다.

초록학교와 함께하는 달서자활가족캠프

대구Y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초록학교와 함께하는 달서자활가족 캠프'가 진행하였다. 초록학교는 달서지역자활센터의 각 사업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자녀들이 건전한 방학생활을 보내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초록학교를 통하여 '나'와 '가족' 안에서 섬김·나눔·살림을 지켜나가는 생명살림의 주역이 되고자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함께한 초등학생들과 자활가족 참여자들, 실무자들, 봉사자들 모두에게 의미있는 초록학교를 만들었다.

'사랑더하기 나눔은희망' 멘토멘티프로그램 꿈쟁이캠프

대구Y는 8월 5일~ 6일 호텔 인터볼고 엑스코에서 꿈쟁이 캠프를 열었다. 대구Y는 2010년 9월부터 외환은행직원들과 청소년·아동들이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 멘토링교육과 요리활동, 앞산등반, 허브힐즈체험 등의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멘토/멘티가 함께 골목

투어, 인터볼고사장의 꿈강의, 레크레이션, 희망주머니법칙 만들기 등의 시간을 가졌다. 꿈쟁이 캠프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아동들과 Y-틴들이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고, 앞으로 지역사회 주역으로 자랄 것을 기대해본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친환경경기관람 문화 확산캠페인

대구Y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7월 15일과 8월 19일 중앙광장에서 친환경 경기관람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대회기간 동안 대구를 찾는 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대구를 알리고,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진행되었다.

마산 YWCA ●이애라 간사

마산창동 청소년 문화존

마산Y는 7월 23일 마산YWCA 주관으로 마산창동 청소년 문화존을 진행하였다. 체험부스(종이가방, 책갈피, 부채, 손수건 등)와 전시부스(현수막 리폼, 친환경 공예리폼, EM 발효액), 청소년 인권조례제정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여 창동을 찾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밴드와 댄스동아리의 공연을 통하여 문화존 열기를 더욱 뜨겁게 하였다.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행사 장바구니 보급캠페인

마산Y는 환경부가 후원하여 폐현수막을 이용한 장바구니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이천시 전통시장 자매결연 행사에 마산Y가 폐현수막을 이용한 장바구니 300개를 나눠주었다.

- 8월 1일~2일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경제캠프
- 8월 26일 경상남도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심의 위원회

부산 YWCA ●여진경 간사

제7차 청소년 해외봉사캠프

부산Y는 7월 19일~27일까지 청소년 17명과 한의사협회와 함께 캄보



디아 다일공동체 밥퍼에서 봉사활동, 의료활동을 펼쳤다. 사봉고아원과 학교에서 한국어수업, 환경미화, 공연 등을 진행하였다.

지역주민 문화축제

부산Y는 7월 23일 부산진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증품, 생필품 마당, 먹거리마당, 체험마당, 지역주민 재능발표회가 있는 지역주민 문화축제를 열었다.

- 7월 22일~23일 2011 여름방학 독서캠프
- 8월 4일~ 5일 하계휴가지 청소년 음주예방공동캠페인
- 8월 11일 좋은화장실문화만들기운동 캠페인
- 8월 17일 안 먹는 음식 사전 반납하기 캠페인
- 8월 20일~21일 다문화가정 가족캠프

사천 YWCA ●정정자 간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경제특강

사천Y는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들을 위하여 8월25일 사천YWCA 교육장에서 경제 특강을 열었다. 어린이들에게 현명한 경제생활 합리적인 소비습관 배양으로 풍요로운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꾸며진 시간이었다.

성인지 교육 실시

사천Y는 사천여자고등학교 4학년(125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청소년기 이성교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고 성폭력 개념정리와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의식 확산의 필요성을 알게 하였다. 동영상시청과 토론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 7월 28일 이동소비자상담실운영

안동 YWCA ●강주영 간사

녹색생활실천교실 환경 교육

안동Y는 7월 23일~28일 국학진흥원, YMCA지역아동센터, 예담학교

에서 100여명을 대상으로 “녹색생활실천 교실 – 환경교육” 을 진행하였다. 실생활에서 무분별하게 허비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천연재료를 활용하여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의 환경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8월 25일~27일 YWCA운동 기금마련을 위한 정기바자회
- 8월 8일 소비자물가조사(~8월 12일)
- 8월 9일 한 하늘 문화나눔 공동체 발대식
- 8월 19일 다문화가정통합프로그램 “올자람캠프”(~8월 20일)

진주 YWCA ●최예진 간사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소등행사

진주Y는 8월 17일 제8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 아파트주민 대상, ‘불을 끄고, 별을 켜다’ 는 주제의 소등행사를 진행하였다. 저녁 7시에 모여 풍물공연의 길놀이로 열고 어린이, Y틴, 노인회원들의 다양한 참여공연 및 홍보&체험부스 운영, 에너지 내용을 담은 연극공연, 에너지절약 개사곡 공모, 5분 소등식, 소등행사에 참여율이 높은 동별 시상식이 있었다. 아파트 주민 95%가 참여하는 흥겨운 한마당이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 발대식

진주Y는 8월 12일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정화운동을 중심내용으로 진행할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유용한 미생물 EM의 중요성을 알려내고, 흙공을 만들어 진주의 셋강에 흙공과 발효액을 투입하여 변화되는 수질을 검사하고 적용해 보는 활동으로 꾸며진다. 생활 속에서 EM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직접 흙공을 만들어 봄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진주Y를 알리는 장이 되었다.

- 7월 4일 여성주간 행사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길’
- 7월 9일 Y틴 한일사절단 요리대결
- 7월 21일 다문화도서관 ‘단비’ Y회원 활동가 교육
- 7월 28일 윤리교사 대상 ‘다문화감수성’교육
- 8월 19~20일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올자람 캠프

통영 YWCA ●임정순 부장

제50회 한산대첩기념축제 참가

통영Y는 ‘제50회 통영한산대첩축제’에서 전시마당 및 체험부스로 북한돋기성금모금, 이동소비자상담실, 환경제품 전시 및 판매, 민들레누비, 가온누비, 재활용품 전시를 하며 통영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포항 YWCA ●김윤미 부장

청소년 대학탐방

포항Y 청소년부에서는 7월 23일 청소년31명, 간사2명, 학부모1명이 서울소재 대학 일일투어를 다녀왔다. 수도권과 지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 대학탐방의 기회가 적은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과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8월 1일 결혼이민여성 출산지원기금 전달식 시행
- 8월 17일 일가정양립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의 지원금 전달식

강릉 YWCA ●전정미 간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캠페인

강릉Y는 7월 18일 Y회관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으로 건강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육 이후 대학로일대와 경포해변일대에서 경찰서와 여성가족부, 시청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캠페인활동을 벌였다.

- 7월 28일~30일 사랑의바이올린 여름캠프
- 8월 1일~12일 산모돌보미 양성교육
- 8월 25일 교도소 생일잔치

동해 YWCA ●송원진 간사

‘에코리더 만들기’

동해Y는 8월16일 여성의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을 하였다. 주부 및 자녀들 30명을 대상으로 녹색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친환경 먹을거리 생산지인 ‘슬로푸드문화원’을 견학하여 체험활동을 전개함으로 환경보호의 기쁨과 실생활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7월 11일 찾아가는 취업창구
- 7월 27일 찾아가는 해피실버드림
- 8월 1일~30일 실버스쿨
- 8월 20일 일가정양립지원사업 ‘행복한 동행’

서울 YWCA

● 박서영 간사

탄자니아 IT교육 봉사활동

서울Y는 17명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원, 단장과 실무자 총 19명이 7월 22일부터 8월 10일에 걸쳐 3주간 동안 탄자니아에서 IT교육 봉사활동을 하였다.

인터넷거래 적정화를 위한 캠페인

서울Y는 대학생 소비자활동가 Y-컨포터즈의 '인터넷거래 적정화'를 위한 캠페인을 지난 7월 22일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Y-컨포터즈 20여 명은 전자상거래 이용 시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들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셜커머스 피해 사례와 예방책을 OX 퀴즈, 회전판 게임을 통해 알기 쉽게 전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 7월 18일~30일 캄보디아 봉사활동
- 7월 12일 직장여성 리더십 강화교육

인천 YWCA

● 김주희 간사

몽골 '인천희망의 숲' 청소년 식림 봉사활동

인천Y는 8월 7일~11일까지 청소년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몽골 사막화, 황사 방지를 위한 희망의 나무심기 봉사단 Green Youth' 활동을 진행하였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해 알리고 실질적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자 모집한 식림 봉사단은 몽골 바양노르 지역의 '인천 희망의 숲' 조림장에서 환경봉사활동을 실시, 지구온난화로 인한 몽골 내 사막화 지역을 방문하여 사막화의 심각성을 체험하고 몽골 청소년들과 함께 나무에 물주기, 구덩이파기 등 초록지구를 만들기 위한 식림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Green Youth의 이번 활동은 지난 3년간의 몽골 그린벨트 내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적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지난 3년간 조성한 조림장의 모니터링이 함께 진행 되어 식재한 나무의 70% 이상의 생존율을 확인, 황량했던 지역이 초록빛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감동의 시간이었다. 인천YWCA에서는 오는 10월까지 인천 지역 내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막화 방지 환경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몽골 사막화와 식

림봉사단의 활동을 소개하며 생활 속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청소년 그린 리더십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 7월 18일~19일 EM 강사교육 및 견학
- 7월 22일 인천삼산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결정
- 7월 23일 자원순환 녹색 나눔 장터
- 7월 25일~29일 집단상담 프로그램(CAP+)
- 8월 23일 어린이 성교육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개강

춘천 YWCA

● 황재옥 간사

어린이 체험환경교실

춘천Y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체험을 실시하였다. 이번교육은 환경을 살리는 EM 비누 만들기과 원주체험학습장 견학체험, 인천의 생태공원과 서울 녹색성장 체험관등을 견학하였다.

- 7월 18일~29일 산모신생아 돌보미 양성교육

서부 지역

광주 YWCA

● 서정현 간사

제7회 청소년여름국제캠프

“세상 속에서 나의 미래를 펼치다”

광주Y는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제7회 광주YWCA 청소년여름국제캠프를 열었다. 청소년 30여명이 참여하여 유럽6개국 8개 도시(영국-런던,옥스포드,체코-프라하,오스트리아-비엔나,팔츠부르크,독일-뮌헨,스위스-루체른,프랑스-파리)에서 유럽 문화와 거대한 자연 알프스 체험, 세계명문대학 탐방을 하였다. 눈으로만 보는 여행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 7월 8일故조아라선생 주기 추모예배 및 추모식
- 7월 18~30일 청소년여름국제캠프
- 7월 25일 광주Y 2011 상반기 프로그램 평가
- 7월 26일 그린탐험대 어린이체험활동
- 8월 4일~5일 청소년여름 수련활동
- 8월 12일 어린이 녹색소비 체험활동
- 8월 25일 광주Y 전직원연수

남원 YWCA

● 조윤희 간사

신나는공부방 농촌문화체험 추억만들기

남원Y는 8월 11일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주천면 회덕마을 농촌문화체험을 실시하였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내 고향 지리산둘레길 탐방, 가족에게 먹이주기, 셋집밥상체험과 썩개떡 만들어먹기, 물놀

이등 다양한 활동으로 자연과 벗하며 농촌사랑과 자연 사랑의 마음을 배워오는 시간을 가졌다.

- 8월 23일 성희롱·성매매 방지 “STOP! 성매매” 캠페인
- 8월 30일 펀펀(FUN-FUN)한 등하교도우미 만들레모임

목포 YWCA

● 정현정 간사

EM 환경리더 양성교육 진행

목포Y는 전남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7월 5일부터 “EM 환경리더 양성사업”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과 EM의 활용 원리와 생활 속 EM 활용법, EM 흙공 만들기, 환경 동화구연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EM 전문 환경운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서귀포 YWCA

● 김지희 간사

회관입주 감사예배 및 기념식

서귀포Y는 7월 28일 회원 및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YWCA회관 강당에서 서귀포YWCA회관 입주 감사예배 및 기념식을 가졌다. 1부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워십팀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었고, 2부 기념식에는 강인순 회장의 인사말, 김재윤 국회의원과 고창후 서귀포시장의 축사, 한국YWCA연합회 강교자 회장이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 김신숙 건축위원장으로 부터 서귀포YWCA 회관 입주까지의 경과보고, 리셉션 등이 진행되었고, 부대행사로는 회관마련 기금모금을 위한 바자회와 일일카페, 포토존 등이 운영되었다.

- 8월 6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문화 만들기'
- 8월 20일~21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Happy Family Day 가족캠프'

순천 YWCA

● 김아라 간사

제 16회 청소년 농촌봉사캠프

순천Y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건강한 청소년 봉사활동의 터전, 제

16회 청소년 농촌봉사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는 낙안 화목마을에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과 지도자 총 44명이 논 김매기, 고추와 양배추 수확 그리고 들깨 심기 등 농촌일손을 도왔다. 각 조별로 2박 3일간의 식사 및 공동체 활동을 통해 학교를 떠나 작은 사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순천Y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농촌봉사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 YWCA ●이경진 간사

‘이주여성 남도손맛 체험교육’ 수료식

여수Y 민들레마을(주)은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주여성 남도손맛 체험교육”을 진행하여 8월 19일 수료식을 가졌다. 관내 거주 다문화가정 여성 3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1일 2시간 총 12회로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남도음식 문화를 체험하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남도음식의 맛과 풍습을 익히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또한 음식을 만들면서 자기계발과 자신감 상승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주여성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도 제공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

청소년 성의식 개선 캠페인

여수Y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는 7월 30일 한화케미칼 생산팀과 함께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성매매 방지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홍보와 청소년 성의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약 10만 명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판넬 및 피켓 전시, 현수막 설치, 청소년 성지킴이 서명운동, 성인지의식 앙케이트조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유입예방과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다.

- 8월 13일 범죄예방교실
- 8월 17일~19일 꿈쟁이 여름 캠프

익산 YWCA ●최유정 간사

북한 이탈주민 멘토교육사업

익산Y는 전북 하나센터와 연계하여 북한 이탈주민 교육 이후, 주1회 대상자들과 만나고 있다. 이 만남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개별적 욕구에 따른 해결을 돕고 있다. 또한 멘토 협의회를 통하여 사례 나눔과 방법 등을 공유하여 보다 효과적인 멘토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집 원아 대상 성교육

익산Y는 어린이집 원아 60여명을 대상으로 ‘나는 사랑의 씨앗이에요’라는 제목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석한 원아들은 호기심을 갖고 시청각 자료를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성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한 장이 되었다.

전주 YWCA ●김은진 간사

‘조선성자 방애인 뮤지컬’ 제작발표회

전주Y에서는 역사속의 여성지도자 발굴계승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성자 방애인 뮤지컬’을 기획하고 8월 25일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본 행사에서는 방애인의 생애와 추진 경과보고, 제작진의 변과 출연진 소개, 작가 및 연출의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공연은 역사 속의 여성지도자를 발굴하고 알려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중학생 학습전략 향상 클리닉 ‘꿈세우기’

전주Y는 8월 22~23일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학습 전략 향상 클리닉 “꿈세우기”를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은 학업성취에 관심이 있거나 학습전략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집단상담을 통해 노트필기, 집중력 향상 등 학업수행을 잘 할 수 있는 학습전략을 배우고, 나만의 노하우를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 7월 4일 여성주간행사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 7월 23일 우리들의 행복한 밥상
- 7월 18일~19일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문지도자 연수
- 7월 19일~22일 여름방학 청소년 무료심리검사 축제
- 7월 27일 농산물 명예감시원 캠페인
- 8월 11일~12일 서부지역 Y틴 회원대회
- 8월 16일~18일 영호남캠프 ‘전주애와 울산애가 만나다’
- 8월 20일 청소년 보호 거리캠페인
- 8월 23일 청소년유해업소 민관합동단속

- 8월 25일 유해약물 및 물건 모니터링

제주 YWCA ●강지혜 간사

‘제주 아동·청소년 비만해결 위한 여성과 지역사회 역할’ 토론회

제주Y는 7월 6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제16회 여성주간기념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비만해결을 위한 여성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제주지역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과 관련해 비만의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 7월 8일 ‘제주지역 청소년 정책토론회’



대전 YWCA ●강은혜 간사

제 16회 대전여성포럼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실태 및 복지정책 모색”

대전Y는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7월 7일 YWCA 4층 강당에서 제 16회 대전여성포럼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의 실태 및 복지정책」을 열었

다.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희정 교수의 “다문화가정자녀교육의 실태 및 복지정책모색”으로 주제 발표 후 토론자로 박주삼 대전광역시 교육청 장학관, 이인순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사무관, 유문영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 임효영 결혼이민 여성이 참여하였다. 이날 포럼은 대전시 다문화 관련 사업기관 실무자 및 초등학교 교사와 대전시민 100여명이 참석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 7월 4일 회원참여의 날 ‘문화와 예술로 시민과 소통하라’
- 7월 7일 찾아가는 재활용 아카데미 교육
- 7월 9일 ECO-PLAY, ECO-FOOD '도출산 생태 체험
- 8월 16일~23일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젊음, 열정으로 복원하는 세계문화유산’
- 8월22일~24일 방과후청소년여름캠프 ‘모두愛 세발자전거-제주에美치다

조치원 YWCA ●홍진영 간사

소록도 봉사나눔캠프

조치원Y 청소년 Y-틴은 7월 25일~27일까지 소록도 봉사나눔캠프에 다녀왔다. 2010년부터 한센인이 사는 소록도 봉사나눔캠프를 시작으로 올해에도 40여명의 연기군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이 7가정방문, 말벗되어드리기, 청소, 밭의 풀을 뽑는 일 등 가슴 깊이 소록도의 정을 나누었다. 봉사활동을 통해 가슴속에 따뜻함을 가득 담을 수 있었다.

천안 YWCA ●김상미 간사

2011년 2차회원보고대회

천안Y는 8월 16일 천안YWCA 강당에서 2차회원보고대회를 열었다. 회원수 54%, 회비 76%를 달성한 보고대회에서는 김태연 회장의 말씀, 윤영숙 강사의 웃음운동 특강이 있었다.

NGO 실무자들의 영(Young)그린(Green) 씬

천안Y 본부 및 지부(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긴급전화1366충

남센터, 천안YWCA 센터, 꿈터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이번 8월 18~20일 제주도로 섬 여행을 떠났다. 이번 여행은 한국여성재단의 '짧은 여행, 긴 호흡'사업 중 하나로 생태여행을 통한 실무자들의 심을 목적으로 하였다.

- 7월 15일 세대간지혜나눔EM휴공만들기교육(새샘초병설유치원)
- 7월 25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업소계도 및 단속활동
- 8월 16일 2차회원보고대회
- 8월 25일 고령자 구인구직 만남의날
- 8월 30일 살림돌보미 월례회 및 보수교육

청주 YWCA

● 정미향 간사

싱크머니 농촌금융교육 캠프

청주Y는 8월 9일~10일 옥천 산계리에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30명과 싱크머니 농촌금융교육 캠프를 진행하였다. 환경과 경제특강,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6가지 코너학습을 통해 재활용, 이산화탄소, 분리수거, 천연자원, 친환경식품, 종이에 대해 배우고 농촌체험을 통해 생산과 소비의 관계, 환경과 경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ICOOP청주YWCA생협 어린이 여름식품안전캠프

ICOOP청주YWCA생협에서 8월 17일 어린이 여름식품안전캠프를 마련했다. 식품안전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아 불거리와 체험거리가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다. 시중에서 어린이들이 자주 사먹는 음료수 사탕 등에 얼마나 몸에 해로운 첨가물이 들어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먹을거리가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나의 주변과 사회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충주 YWCA

● 김애영 간사

녹색환경인형극단 창단

충주Y는 7월 29일 60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구성된 녹색환경인형극단을 창단하였다. 연합회 강교자회장과 내외빈 및 단원과 회원들을 모시고 창단식을 열었다.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

실에서 어린시기부터 환경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늘푸른인형극단이란 명칭으로 '녹색나라의 비밀'이라는 어린이 인형극을 열 계획이다.

- 7월29일 녹색환경인형극단 발대식
- 8월 19일 갯벌체험
- 8월 3일~24일 방과후경제교육(4개지역아동센터 16회실시)



“속탄력을 채우면
나이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속탄력, 나이를 밀어내는 힘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다시 탄탄하게 차오르는 피부를 원한다면 속탄력을 채워 피부 속 시간을 되돌리세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은 아민토 플라본 추출물과 슈퍼오메가를 통해 피부에 생명력을 채우고, 피부 속부터 탄력을 공급하여 탄탄하고 윤기 나는 피부로 되돌려줍니다. 경험해보세요, 속탄력이 채워지면 피부는 다시 젊어집니다.

- 아민토 플라본은 관개 추출물로서 피부에 생명력을 더해주어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 슈퍼오메가는 오메가3에 속미량신화 시스템을 더해 탄력은 물론, 화사한 빛까지 되찾아줍니다.



My Favorite Beauty Shop
ARITAUM
www.aritaum.com

•아리따움에서 아이오페를 만나세요 •고객상담실 080-023-5454 www.iope.co.kr